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현대중국어 ‘让’의 의미기능 연구

2015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김 정 주

현대중국어 ‘让’의 의미기능 연구

지도교수 이 강 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10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김 정 주

김정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 년 12 월

위 원 장

오 수 형



부위원장

박 정 구



위 원

이 강 재



【국문초록】

현대중국어 ‘让’의 의미기능 연구

본고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현대중국어 让자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让자는 본래 ‘책망하다’는 의미로 쓰이다가, ‘양보하다’는 의미의 攘자의 가차자(假借字)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대중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让자의 기본의미인 ‘양보하다’의 의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국어 让은 ‘양보하다’라는 기본의미와 확장 의미인 사역의미와 피동 의미로 쓰인다. 사역의미 让은 ‘시키다’ 의미, ‘초래하다’ 의미, ‘허락하다’ 의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허락하다’ 의미 안에는 ‘겸양’ 의미가 속해있다. ‘겸양’ 의미는 ‘我’나 ‘我们’으로 나타나는 피사역자가 사역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는 문장이다. 다만 상대방의 허락 여부를 묻는 형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른 사역 표지 문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让의 고유한 용법이다.

사역의미 让자문의 의미별 사역자, 피사역자, 사역 행위의 통사 특징, 사역자와 피사역자의 유·무정성과 통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키다’ 의미와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에는 유정물 사역자가 쓰인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중 ‘겸양’ 의미는 사역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에는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 쓰일 수 있다. 사역자의 통제도는 ‘초래하다’ 의미 > ‘시키다’ 의미 > ‘허락하다’ 의미 순으로 ‘초래하다’ 의미의 사역자가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높다.

사역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유·무정성 측면에서 사역자와 같은 양

상을 보였다. 다만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중 ‘겸양’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에는 ‘我’나 ‘我们’만이 올 수 있다. 또한 ‘겸양’ 의미 让자문은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사역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사건의 통제도 면에서 사역자와 차이점을 보인다. ‘허락하다’ 의미 > ‘시키다’ 의미 > ‘초래하다’ 의미 순으로 ‘허락하다’ 의미의 피사역자가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높다.

사역의미 让자문의 사역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를 분석 결과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술어와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술어는 동작성을 지닌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중 ‘겸양’ 의미 让자문의 사역 행위도 동작성을 가진다. 다만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 행위는 결과의 발생이나 상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주어는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 피행위자로(受事)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생략도 가능하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목적어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인 행위자(施事)로 유정물이 주로 오지만, 유정물뿐만 아니라 장소나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무정물이 출현할 수도 있다. 피동의미 让자문은 그 동작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주체를 알 수 없거나, 행위자가 없을 경우에도 ‘人’ 혹은 ‘人家’라는 목적어를 사용한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피동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동작이 오는 경우가 많다. 피동의미 让자문은 ‘X 让 Y+给+Z’ 형식이 많이 쓰인다.

종합해보면, 让자문은 동사에서 사역의미로, 또 피동의미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역의미 让자문에는 ‘겸양’ 의미를 가진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어 : 让자문, 사역, 겸양, 통제도, 피동

학 번 : 2011-23077

목 차

【국문초록】	i
1. 서 론	1
1.1. 문제제기	1
1.2. 선행연구	4
1.2.1. 사역의미의 让자문 연구	4
1.2.2. 피동의미의 让자문 연구	9
1.3. 연구대상 및 방법	10
2. 让의 의미의 변천	17
2.1 让의 본래의미	17
2.2 让의 확장의미	21
2.2.1 근대중국어 让의 의미	21
2.2.2 현대중국어 让의 의미	25
2.3 소결	28
3. 사역의미	30
3.1 사역자 분석	30
3.2 피사역자 분석	39
3.3 사역 행위 분석	47
3.5 소결	52
4. 피동의미	55
4.1 피동의미 让자문의 의미적 특징	56
4.2 사역의미 让자문과의 비교	60
4.3 소결	63

5. 결론	65
참고문헌	68
【中文摘要】	73

표 목 차

〈표 2-1〉 讓의 의미 쓰임	26
〈표 3-1〉 사역의미 讓자문 사역자 통제도 비교	53
〈표 3-2〉 사역의미 讓자문 피사역자 통제도 비교	53
〈표 4-1〉 사역의미 讓자문과 피동의미 讓자문의 통사 특징 비교 ·	63

1. 서론

1.1. 문제제기

현대중국어 让자문은 ‘주어 让 목적어+술어’의 구조로 구현된다.¹⁾ 让자문은 이러한 하나의 구조 속에 기본의미와 사역의미 그리고 피동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让의 사역의미는 그 안에서 또 다시 의미가 세분화된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의 让자문을 보고 한눈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 a. 我让他说了几句。 鄧守信(1991:32)
 = b. 我请他说了几句。(让₁)
 나는 그가 몇 마디 하도록 했다.
 = c. 我容许他说了几句。(让₂)
 나는 그가 몇 마디 하게 허락해주었다.

鄧守信(1991)은 (1)의 예문을 让₁과 让₂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는 让₁을 “행위자1(施事, 즉 사역자)은 행위자2(피사역자)가 종사하는 어떤 일의 권한을 부여받다”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让₂는 “행위자1(사역자)이 행위자2(피사역자)의 바람에 대해 양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让₁ 문장은 ‘행위자1의 권력’이 핵심이고, 让₂ 문장은 ‘행위자1의 양보’가 핵심이라고 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b)에서 ‘我’는 ‘他’가 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사역의미 让자문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让자문이 다음과 같이 해석되는 경우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 이후에는 'X 让Y+Z'로 표기할 것이다.

- (2) a. 我让他拿走了一本书。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가져가라고 했다.
= b. 我被他拿走了一本书。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뺏겼다.

(2b)는 (2a)의 주어인 ‘我’를 피행위자(受事)로, 목적어인 ‘他’를 행위자(施事)로 본 것이다. 이처럼 让자문은 사역의미 이외에도 피동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鄧守信(1991)은 让자문의 사역의미만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2a)의 문장이 (2b)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역의미 让자문 가운데 ‘X 让Y+Z’ 형식에서 X가 생략된 형태, 즉 사역자가 생략된 형태에 대한 고찰도 부족하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3) 让我们一起走吧。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도록 해 주십시오.)
(4) 让我们讨论讨论。
우리 토론 좀 해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5) 请让我看看你的护照。
여권 좀 보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당신의 여권을 보도록 해 주십시오.)

(3-5)는 허성도(2007)에 나오는 문장이다. (3-5)에는 사역자가 출현하지 않는다. 피사역자인 ‘我’ 혹은 ‘我们’은 생략된 사역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 사역자의 허락여부는 피사역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허성도(2007)는 ‘让’의 주어가 나오지 않고, 겹어가 ‘我, 我们’이면, ‘让’의 사역성은 현저하게 약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은 주로 상대의 허락을 구함과 동시에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

며, 위의 ‘让’은 상대방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본고는 이처럼 사역의미 让자문 가운데 사역자가 나오지 않고, 피사역자가 ‘我’ 혹은 ‘我们’인 문장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장은 사역의미 让자문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이러한 문장은 생략된 사역자에게 형식상 허락의 권한을 주는 형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让자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고는 위의 문장처럼 사역의미 중 ‘허락하다’의 의미에 포함되어있는 让자문 가운데 ‘让’의 사역자가 나오지 않고, 피사역자가 ‘我, 我们’인 문장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앞서 (1)에서 살펴보았듯이 让자문은 그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다른 사역 표지들인 使, 叫와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그 쓰임에 오류도 적지 않다.²⁾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让에 관한 연구는 그 수도 많지 않거니와³⁾, ‘让’자문 자체에 대한 통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박미정(2001)을 살펴보자. 그는 국내·외 다양한 학자들의 사역에 대한 연구를 종합 정리하였다. 통사적 사동과 어휘적 사동법을 다루면서, 통사적 사동법이 실현된 대표적 문형이 겸어문(謙語文)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겸어문을 다루는 과정에서 使, 让, 叫 사역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让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은석(2010)은 한중 사역문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역문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 또한 한중 사역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이지 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아니다. 이처럼 한국의 현대중국어 让자문 연구는 독립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가운데 혹은 한중 사역 비교 연구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让자문은 현대중국어 구어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문형이다. 그러나

2) 让자문의 오류분석에 관한 논문으로는 曹冬雪(2010)이 있다.

3) 최현미(2014)는 사역의미 让자문의 연구 현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내 연구로는 정성훈(2013)이 让구문을 외현 사역문의 하나로 다루고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생성과정을 분석한 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김윤정(2008), 박미정(2001) 등의 연구가 있으나 让구문만을 대상으로 심층적 연구를 실시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让자문이 이렇듯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국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은 오히려 让자문을 제대로 구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让자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让자문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먼저 让의 기본의미와 기본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让의 사역의미와 피동의미를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즉, 사역의미 让자문은 그 의미를 ‘시키다’, ‘초래하다’, ‘허락하다’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별로 사역자, 피사역자, 사역행위를 분석하기로 한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중에서 사역자가 생략되고 피사역자가 ‘我, 我们’인 문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행위자, 피행위자 그리고 피동행위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역의미 让자문과 피동의미 让자문의 비교를 통해 让자문이 사역의미와 피동의미로 쓰일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1.2.1. 사역의미의 让자문 연구

기존의 연구에서 비교적 논의가 활발했던 부분은 사역용법에 관련된 것이다. 王力(1958)은 사역용법을 ‘치동(致動)’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으며, 이러한 사역용법이 현대중국어에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일부는 ‘동결(動結)’구조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 사역용법 이외의 다른 사역표현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朱德熙(1982)도 빈어를 다루는 부분에서 일부 동사들이 사역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서술했을 뿐, 사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劉月華(1983)은 형용사는 빈어를 수반할 수 없는데 몇몇 형용사가 빈어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주로 사역의미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사역의미의 겹어문에 대해 언급했을 뿐, 사역을 독립적으로 다루

지는 않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사역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사역표현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사역표현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분류 작업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는 範曉(2000), 陳昌來(2001) 등이 있다.

範曉(2000)는 사역구조는 중요한 어법구조로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는데, 어떤 실체가 자발적으로 어떤 상황-동작행위, 활동변화, 성질·상태를 포함하는-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작용이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피사역자에 대한 사역자의 작용이나 영향을 가리켜 과학용어를 써서 ‘致使’ 혹은 ‘使役’이라 하고, 사역자와 사역자의 작용을 받는 실체 사이의 관계를 ‘사역관계(致使關係)’라고 하였다. 또한 이런 객관적인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고 언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어법에 반영되면 특정한 어법구조를 이루는데 이것을 ‘사역구조[致使結構]’라 하고 이 사역구조가 만들어낸 문장을 ‘사역문[致使句]’이라 한다고 설명하였다.

陳昌來(2001)은 사역자 혹은 사역자의 동작이나 행위가 피사역자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상태 혹은 동작과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사역이라고 하였다. 이때 어떤 대상에게 새로운 상태나 동작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사역자가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는 대부분 사역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이지, 현대중국어 사역표지 让을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사역표지 让을 비교적 깊이 있게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

鄧守信(1991)은 让과 영어의 have, 叫와 make의 대응관계를 연구하면서 让의 의미를 让₁과 让₂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는 다음의 예를 들어 让₁과 让₂의 정의를 내렸다.

- (6) a. 我让他说了几句。
= b. 我请他说了几句。(让₁)

나는 그가 몇 마디 하도록 했다.
= c. 我容许他说了几句。(让₂)
나는 그가 몇 마디 하게 허락해주었다.

그는 让₁의 정의를 ‘행위자1(施事)(사역자)은 행위자2(피사역자)가 종사하는 어떤 일의 권한을 부여받다’로 내렸다.

- (7) 金生让灵芝接着说完, 灵芝更……⁴⁾
金生은 灵芝가 이어서 말을 마치게 하였다. 灵芝은 또……
(8) 她身体好了以后, 领导上让她到中央民族学院学习。⁵⁾
그녀의 건강이 좋아진 후에, 상사는 그녀를 중앙민족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하였다.

(7)은 사역자인 ‘金生’이 피사역자인 ‘灵芝’가 말을 마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8)의 사역자인 ‘领导’는 피사역자인 ‘她’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 (7-8)에서 보이듯이 让₁ 문장의 관건은 ‘권력’이다.

그는 让₂는 ‘행위자1(사역자)이 행위자2(피사역자)의 바람에 대해 양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9) 把门的让他进去。
문지기는 그를 들여보냈다.
(문지기는 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였다.)⁶⁾
(10) 学校让我教书。
학교는 내가 가르치게 하였다.
(학교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였다.)⁷⁾

4) 『現代漢語虛詞例釋』(1982). 鄧守信(1991:31) 재인용.

5) 『實用現代漢語語法』(1983). 상동.

6) 의미 해석을 돕기 위해 직역하였다.

7) 상동(上同).

(9)는 사역자인 ‘把门的’가 피사역자인 ‘他’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바람에 양보하는 문장이다.⁸⁾ 문지기는 ‘他’를 들여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他’가 들어오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의 바람에 양보를 해 주는 것이다. (10)은 사역자인 ‘学校’가 피사역자인 ‘我’의 가르치고 싶어 하는 욕망에 양보하는 문장이다. 이처럼 让₂ 의미의 문장은 ‘양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鄧守信은 의미상으로는 让₁이 让₂보다 더 복잡하고 让₂는 의미가 아주 간단명료하다고 설명하였다.

曹冬雪(2009)는 사역의미의 让₁과 허락의미의 让₂로 분류하면서, 让₁ 문장의 의미는 N₁(사역자)이 N₂(겸어)를 시켜서 V(술어)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让₂의 문장 의미는 N₁이 희망, 바람을 가지고 N₂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让₁구문의 N₁은 원인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让₁의 N₁의 의미 특징으로는 [±생명], [-바람·희망/주관], [-통제], [+실시성/사역성]이 있다고 하였다. 让₂구문의 N₁은 바람, 희망을 말하는 사람으로 N₁의 의미 특징은 [+생명], [+바람·희망/주관], [-통제], [-실시성/사역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让₁의 N₁은 구체적인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 모두가 가능하지만 생략할 수는 없으며, 让₂구문에서 N₂가 1인칭, 3인칭일 때의 N₂는 자주 생략된다고 하였다.

王功領(2013)은 让의 의미를 크게 ‘시키다’와 ‘허락하다’ 두 가지 의미로 분류한 뒤, ‘시키다’ 의미와 ‘허락하다’ 의미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시키다’ 의미에는 ‘사역’의 의미와 ‘추상적 초래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추상적 초래의 의미’는 또 다시 ‘일반 추상 초래의 의미’와 ‘속성 묘사 의미’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허락하다’ 의미를 ‘허용 의미’, ‘객관 허용의 의미’, ‘방임의 의미’로 더욱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대중국어의 사역표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많지 않다. 사역에 관련된 논저로 묘연창(1998)이 현대중국어의 ‘使’구문을 연구하였고, 사역문을 비교적 폭넓게 다룬 논문으로 김윤경(1997)과 박

8) Chappell은 ‘양보’를 ‘사역자(cuaser)가 시작하면 더 잘 할 수 있지만, 피사역자(causee)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鄧守信(1991:32) 재인용.

미정(2001)이 있는데, 사역표지로 쓰인 让자를 독자적으로 다룬 논문은 그 수가 많지 않다.

박미정(2001)은 현대중국어의 사역 표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사역의 정의부터 사역법의 유형, 사역 표현의 의미차이까지 사역의미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종합, 정리하였다. 그는 사역법의 유형을 통사적 사역과 어휘적 사역으로 구분 지었다. 통사적 사역의 대표적인 문형으로 겹어문을 다루면서 그 안에서 让자문을 언급하였다. 그는 ‘让’은 뒤따르는 표현이 앞의 피사역행위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문장은 성립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사역자는 사역행위만을 할 뿐, 피사역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让이 쓰인 사역표현의 사역행위가 피사역행위의 실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박미정(2001)에서 让자문은 다양한 사역 표현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김윤정(2008)은 사역구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역구문을 피사역주의 의미 역할에 근거하여 행위자 피사역주 사역구문, 경험자 피사역자 사역구문, 수동자 피사역주 사역구문, 피사역자 객관화 사역구문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让자문과 叫자문이 행위자 피사역주 사역구문에 해당한다. 다른 사역표지가 여전히 내용어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에 반해 让은 그러한 예가 거의 없는 가장 전형적인 사역표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让이 실질적인 어휘 의미를 거의 소실하고 사역을 표시하는 기능어로 변해있음을 말해주며 바로 이 때문에 让은 피사역주의 의미역할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让의 기본 의미인 ‘양보하다’로 쓰이는 문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고가 분석한 《我愛我家》의 1111개 让자문 문장 중에서 동사로 쓰이고 있는 문장은 140개였다. 이는 전체 让자문의 12%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让이 기능어로 완전히 변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또한 그의 연구는 박미정(2001)과 마찬가지로 让의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가 아닌 사역구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기존 학자들은 让을 용법에 따라 让₁과 让₂로 나

누어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让₁이 쓰인 문장은 사역자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겹어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하거나 결과를 만들게 시키는 문장이고, 让₂의 문장은 사역자가 겹어가 하고자 하는 바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문장으로 보고 있다.

1.2.2 피동 의미의 让자문 연구

현대중국어의 피동은 주로 被자문에 관한 연구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80년대 이후 현대중국어의 피동용법을 연구한 논문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⁹⁾

王力(1943)는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를 피행위자가 받는 문장을 ‘피동식(被動式)’이라고 하였다. 피동식이 나타내는 것은 피행위자가 원치 않거나, 바라지 않는 일 혹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일반적으로 현대중국어에서 피동을 나타내는 표지로 被 이외에 让, 叫(教), 给가 있다. 趙元任(1968)은 归, 由, 有를 포함시켰고, 劉叔新(1989)는 为, 由도 피동 표지라고 하였다.¹⁰⁾

李允玉(1997)는 현대중국어에서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被, 叫, 让, 给를 연구하였다. 그는 이들의 활용상의 차이에 대해 고찰하고, 이들이 각각 쓰이는 형식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石毓智(2005)는 피동표지 被, 让, 叫, 给的 출현과 사용을 논하였다. 그는 被의 문장 성분 문제, 피동문의 구조, 의미특징, 구조특징, 被자문과 기타 구조의 호환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논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중국어 피동문 연구는 주로 被가 중심이 되고 叫, 给, 让을 함께 다루는 유표지 피동문에 관한 것과 의미상의 피동문을 그 주제로 다룬 것이 많다. 그러나 피동 의미 让자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让자문을 비교적 자세히 다룬 논문으로는 전기정

9) 王振來(2006) 참고.

10) 陳力(2002:4-5) 재인용.

(2005)와 이지현(2007)이 있다. 전기정(2005)은 피동문의 각 위치에 오는 성분에 대한 논의와 피동표지 让과 叫의 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让과 叫이 구어에서 많이 쓰이고, 피동표지 이외에도 다양한 쓰임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지현(2007)은 피동표지 让자문의 문법화 과정을 다루었다. 그는 让은 ‘명령’의 의미가 약한 弱사역류에 속하며 따라서 ‘용인, 허락’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让의 ‘용인, 허락’의 의미는 피동표지로서의 문법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피동표지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다. 그러나 피동표지 让만을 다루는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국내에서도 피동의미 让자문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被자문 연구에서 让자문의 피동의미를 같이 연구한 것이 많다. 하지만 이조차 대부분 피동 표지들의 쓰임에 대한 차이점을 연구한 것으로 피동의미 让자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3 연구대상 및 방법

본고는 让의 의미적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让은 현대중국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분화되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让은 ‘양보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진 동사로 쓰인다. 또한 사역의미와 피동의미로도 쓰인다. 인지 의미론적 측면에서 이처럼 복잡한 의미를 가진 让의 의미를 2장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让자문은 ‘X(사역자) 让 Y(피사역자)+Z(사역행위)’의 구조로 쓰인다. 이 구조의 让자문이 사역의미나 피동의미로 쓰일 때, 학습자들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는 X, Y, Z를 주어, 목적어, 술어의 문장 성분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오는 혼란이다. 이를 사역의미일 때는 사역자, 피사역자, 사역행위로 피동의미일 때는 피행위자, 행위자, 피동행위와 같은 의미역으로 파악하면 보다 쉽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Comrie(1989)는 사역(causation)을 원인과 결과를 각각 나타내는 두 개의 사건을 갖는 하나의 큰 사건으로 정의한다. 즉, 사역은 어떤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주(causer)가 참여하는 선행사건과 그 영향을 받는 피사역주(causee)인 대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후행사건으로 구성되는 인과관계인 것이다. 이를 사역의미 Let자문에 대입해 보면 주어는 곧 사역주이고, 목적어는 피사역주가 되며, 술어는 사역 행위에 해당한다. 사역의미 Let자문에서 사역 행위가 만들어지려면 사역주와 피사역주라는 논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¹¹⁾

사역의미의 Let자문에서는 통제도¹²⁾에 따라 사역주의 의지대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피사역자의 의지대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Talmy(1988)에 의하면 통제도¹³⁾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A. 힘의 실체

ㄱ. 주동자(Agonist)

ㄴ. 대립자(Antagonist)

B. 힘의 내재적 경향성

ㄱ. 활동 경향(toward action)

ㄴ. 정지 경향(toward rest)

11) 논항이란 술어(predicate)가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make'의 의미 구현을 위해서는 '만드는 자'와 '만들어지는 대상'이 꼭 필요한 데 이들을 논항이라 한다. 정태구(2001).

12) 통제도에 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3) Talmy는 힘 역학(Force dynamics) 개념을 제시한다. 힘 역학이란 일반적으로 개체들 간의 힘의 상호 작용을 다루는 의미범주를 일컫는다. 전통문법에서 힘 역학의 인식은 주로 '사동(causing)' 개념에 나타나는데, Talmy는 힘 역학 이론을 통해 사동에 대한 전통적인 언어학 개념을 의미적으로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사동의 경우를 힘 역학 이론에 첨가하는 것이 아닌, 사동 개념을 더 세분화된 의미자질로 분석하여 사동 개념에 대한 더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모델을 제공하였다. 이기동(2000).

C. 힘의 균형

ㄱ. 강한 실체(stronger entity)

ㄴ. 약한 실체(weaker entity)

D. 힘의 상호작용 결과

ㄱ. 동작(action)

ㄴ. 정지(rest)

위에서 제시한 통제도¹⁴⁾의 의미자질이 문장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11) 小王打伤了这个人。

小王은 이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

(12) 大风把树都吹倒了。

거센 바람이 나무를 모두 넘어뜨렸다.

이운재(2014:19)는 (11-12)의 주어인 ‘小王’과 ‘大风’은 강한 동작성을 지닌 주동자로 사역자를 보고 있으며 사역자의 힘에 반응하는 대립자인 ‘这个人’과 ‘树’는 피사역자로 보고 있다. 이운재(2014)에 따르면 사역자와 피사역자의 상태변화는 통제도에 의해서 유발되며, 상호 힘의 작용 결과 수동적 입장을 취한 피사동자 ‘这个人’과 ‘树’의 상태변화가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11-12)의 문장에서 사역자의 통제도가 피사역자보다 크기 때문에 사역자의 힘에 피사역자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통제도가 사역문에서 피사역자의 상태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여긴다. 통제도의 강약에 의해 사역 행위가 그 힘을 발휘하거나 무력화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피동의미 让자문에서는 피동 행위가 만들어지려면 행위자와 피행위자

14) Lakoff(1987), Comrie(1989), Song Seokchoong(1988), 박정운(2003), 박은석 (2011) 등은 ‘통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운재(2014)는 통제도를 ‘작용력’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가 필요하다. 피동 의미 让자문에서 주어는 피행위자이고 목적어는 행위자이다. 술어는 피동 행위 혹은 피동 행위의 결과이다.

본고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가진 让자문의 분석을 위해 《兒女英雄傳》과 《我愛我家》¹⁵⁾를 언어 자료로 삼았다. 본고가 근대중국어 연구를 위해 《兒女英雄傳》을 선택한 이유는, 《兒女英雄傳》이 당시의 북경 구어를 잘 반영하고 있고, 청대의 다양한 면모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동 의미 让자문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紅樓夢》과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 《兒女英雄傳》의 让자문 분석을 통해서 근대시기 피동 의미 让자문의 쓰임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존의 현대중국어 让자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코퍼스나 소설을 텍스트로 삼았다. 그러나 현대중국어 让자문은 구어에서 그 쓰임이 더욱 활발하다. 실제로 본고는 북경대 코퍼스 자료와 드라마 극본언어 자료인 《我愛我家》의 让자문의 분포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북경대 코퍼스에서는 让자를 검색한 뒤 임의적으로 1000개의 문장을 추출해서 검색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00개 문장 중 사역의미를 갖는 문장은 817개의 문장이었고, 이 중 ‘허락하다’ 의미로 쓰인 문장은 오직 67개 문장(6.7%)으로 상당히 적었다. 반면, 《我愛我家》의 让자문은 총 1111개 문장이다. 이 중 사역의미를 갖는 895개 문장에서 ‘허락의미’ 让자문은 206개 문장(18%)으로 북경대 코퍼스의 예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의 차이는 북경대 코퍼스의 문장은 대부분 서면어이고, 《我愛我家》는 드라마 극본으로 구어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구어체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我愛我家》를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我愛我家》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함께 사는 북경의 6인 가족을 그 주인공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인물이 구사하는 현대중국어의 구어가 반영되어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구어 사용을 잘 반영한 《我愛我家》를 기본 텍스트로 한다. 《我愛我家》의 让자문 분석을 통해 현대중국어 구어 让의 쓰임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我愛我家》에 출현하는 让자문이다.

15) 총 120부작의 중국 최초 시트콤으로, 1994년에 첫 방영되었다. 90년대 북경의 6인 가족과 그들의 이웃, 친구들이 보여주는 사회의 모습을 그렸다.

- (13) 我拟了个讲稿, 先让家里人听一听, 你们都愿意听吧? 16)

내가 이 원고를 준비했어. 먼저 가족들에게 듣게 하려고 해. 모두들 듣기를 원하지?

- (14) 这个你不要再说下去了, 听着倒让人心酸啊。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쓰리네.

- (15) 老局长, 您就让我在客厅搭床吧。

국장님, 제가 응접실에 잠자리를 보게 해주세요.

(13)은 让의 목적어 ‘家里人’이 ‘我’에 의해서 원고를 듣게 되는 문장이다. 즉, 사역자가 의지를 가지고 목적어에게 어떠한 행위를 시키는 문장이다. 반면 (14)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야기’가 원인이 되어 마음을 쓰리게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즉 让자문 앞의 문장이 원인이 되어서, 让자문의 결과를 초래하는 문장이다. (15)을 살펴보면, 让의 목적어가 사역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형태이다. ‘我’는 ‘局长’에게 잠자리를 펴도 되는지 여부를 허락받고 있다. 종합해보면 (13)은 ‘시키다’의 의미, (10)은 ‘초래하다’의 의미, (15)는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사역의미 중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문장들은 허락의 의미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6) 让我们还是做朋友吧!

우리 그래도 친구합시다!

- (17) 让我们来约定。

우리 약속합시다.

16) 기존 학자들의 논문에서 인용된 예문을 제외하고 본고에 출현하는 현대중국어 예문은 모두 《我愛我家》에서 추출한 것이다.

(16-17)은 ‘X 让 Y+Z’형식에서 X가 생략된 형태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했듯이, 허성도(2007)은 让자문에서 사역자가 나오지 않고, 겹어가 ‘我, 我们’이면, ‘让’의 사역성은 현저하게 약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은 주로 상대의 허락을 구함과 동시에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김해월(2008)은 위와 같은 문장을 중국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장 형식이라고 하면서 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제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박은석(2010)은 이를 ‘让’의 특수 용법으로 따로 분류 하였다. 그는 이 문장을 ‘让我(们)……(吧)’의 구조로, ‘叫, 使, 令, 使得, 致使’로 바꿔 쓸 수 없다고 하였다. 허성도(2007)은 让의 이러한 용법을 따로 구분해 놓았을 뿐, 让이 이러한 용법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김해월(2008)과 박은석(2010)은 이러한 让의 용법을 사동의 허락 용법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범주, 즉 이러한 让의 용법을 하나의 특수한 문장 형식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본고는 ‘让’의 이러한 용법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让자문은 사역자가 나오지 않고, 목적어가 ‘我, 我们’이라는 통사적 특성을 갖는다. 또 이러한 문장들은 피동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즉, 사역문에서만 보이는 고유한 의미 특징이라는 것이다. 또한 让자문의 ‘겸양’의 의미는 다른 사역표지문장에서 볼 수 없는 让자문만이 가지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让자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위의 문장처럼 사역의미 중 ‘허락하다’ 의미에 포함되어있는 让자문 가운데 ‘让’의 사역자가 나오지 않고, 목적어가 ‘我, 我们’인 문장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¹⁷⁾

이는 让자의 기본의미인 ‘겸양하다’와 관련이 깊은 의미 기능으로 보인다. 사전적 의미로 ‘겸양’은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겸양을

17) 본고가 진행한 사역의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206개 문장 중 겸양 표현에 해당하는 문장은 24개였다. 이는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11%에 달하는 수치이다.

나타내는 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겸양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많지 않다. 洪成玉(2002)는 ‘겸양어’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자신 혹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 혹은 사물을 이르는 말¹⁸⁾이라고 하였다. 김숙자(2005)는 현대 일본어에서 상대방에게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허가를 얻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가 스스로 행동하고 그 덕분에 상대가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표현하면 정중하게 들린다. 즉, 자신이 하는 행동을 상대방의 허가 내지 양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허가를 요구하는 표현을 하면 겸양 표현이 되는 것¹⁹⁾이라고 하였다.

김숙자(2005)의 정의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주고 사역자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써서 화자의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을 ‘겸양’ 의미로 정의 내리고자 한다. 이때 화자는 자신의 바람이나 의지대로 행동한다. 본고는 ‘겸양’ 의미를 사역의 허락의미 让자문 연구에 포함시켜 분석할 것이다.

또한 4장에서는 피동의미 让자문의 의미적 특징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중국어 사역의미 让자문과 피동의미 让자문의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중국어 让자문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8) 서미영(2009:175)에서 재인용.

19) 김숙자(2005:7)

2. 让의 의미의 변천

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让에 대한 의미적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고대중국어 讓(让)의 쓰임을 통해 让의 본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让자문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서 让의 용법이 파생된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让의 본래의미

『漢語大詞典』에서 제시하는 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 |
|------------------------------------|-----------------------|
| ①꾸짖다, 나무라다. | ⑪인사하다, 안부를 묻다. |
| ②겸양하다, 사양하다. (謙讓) | ⑫내맡기다, 허용하다. |
| ③양보하다, 남에게 미루어주다 | ⑬변비가 오고 나서 설사하다. |
| ④넘겨주다, 양도하다 | ⑭攘과 통용. |
| ⑤피해주다, 비켜주다. (退讓) | ①훔치다, 절취하다. ②소란스럽게 하다 |
| ⑥추대하다 | ⑮임금이 산천(山川)에 지내는 제사 |
| ⑦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두 손을 가슴 위로 들어 올리다. | ⑯술을 담그다. 釀과 통용 |
| ⑧미치지 못하다. 뒤떨어지다. | ⑰물 이름 ⇨ 讓水 |
| ⑨청하다, 요청하다. | ⑱성(姓) |
| ⑩술과 음식 따위로 대접하다, 초대하다. | |

본고는 『漢語大詞典』이 제시하는 让의 의미 ①-⑤중에 ‘꾸짖다’가 있다는 점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현대중국어에는 『漢語大詞典』에서 제시하

는 让의 기본 의미 중 골자가 되는 의미는 남아있다. 그러나 让의 ‘꾸짖다’라는 의미는 현대중국어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 『現代漢語八百詞』에서 제시하는 让의 의미를 살펴보자.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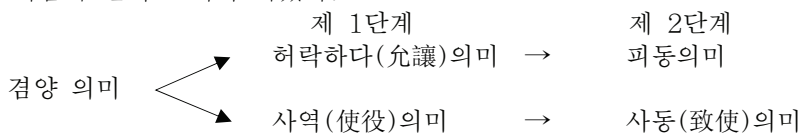
- [동사]
1. 논쟁이나 경기 중, 유리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주고, 자신은 손해를 봄: 양보하다.
 2. 겸양하다: 접대를 받아들이게 함
 3.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벗어나
 4.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이동시키다.
 5. 사역: 허락, 방임. 반드시 겸어를 가져야 함

[개사] 피동: 동작의 행위자(施动者)를 끌어들인다. 동사의 앞이나 뒤에는 일반적으로 완성,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거나 혹은 동사 자체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漢語大詞典』과 『現代漢語八百詞』를 관통하는 让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는 ‘양보’와 ‘겸양’이다. 학자마다 让의 의미가 사역의 의미로, 피동의 의미로 파생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없지 않으나²¹⁾ 기

20)致使: 容许, 听任. 必带兼语.

21)劉雲(2006)은 겸양 의미의 让이 타동사로 쓰일 때, 목적어는 사물과 사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 让자문의 사역자는 양보로 인해 실질적 손해를 입기 보다는 차를 권하다(让茶), 자리를 권하다(让座), 담배를 권하다(让烟), 술을 권하다(让酒)의 경우처럼 예의상 겸양의 의미가 있는 문장이다. 이러한 문장의 사역자는 실제로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를 ‘예절성 양보’라고 명명했다. 목적어가 사물인 문장의 사역자는 주동적으로 양보한 사람으로, 명백한 손실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실질적 양보’라고 명명했다. 그는 실질적 양보의미의 让자 겸어문은 한대(漢代)에 출현하여, 원명대(元明代)에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고, 예절성 양보의미의 让자 겸어문은 명청(明清)시기에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겸양 의미의 让자 겸어문은 실질적 양보의미의 让자 겸어문과 예절성 양보의미의 让자 겸어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그는 让자 겸어문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본이 되는 의미들은 여전히 현대중국어에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보’와 ‘겸양’의 의미는 현대중국어 동사의 기본 의미이며, 사역 의미 안에서도 겸양의 의미로서 아직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사실 고대중국어 讓자의 본래 의미와 현대중국어의 让자의 기본 의미는 의미 간에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들의 간격을 채워 줄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꾸짖다’가 讓자의 본래 의미이었다는 것만을 가지고는 바로 뒤이어 오는 ②-⑤의 파생의미들과의 관계, 그리고 현대중국어에서 让자의 기본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 본래의미는 그 자(字)가 최초로 만들어진 당시의 의미이다. 다의자(多義字)의 여러 자의(字義) 중에는 반드시 하나의 본래의미가 있는데, 이는 의미가 분화되는 기점이며 다른 의미가 인신되는 근원이자 전체 字의 체계를 연계하는 핵심 요소이다. 파생의미는 본래의미에서 인신되어 나온 파생된 의미이다. ‘인신되었다’는 것은 본래의미와 파생의미 사이에 공유하는 의미 자질과 공유하지 않는 의미 자질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 이들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확보하고자 让자의 본래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설문해자(說文解字)』가 제시하는 让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相責讓。从言襄聲。人漾切。

위의 설명에 따르면, 让자는 ‘서로 책망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성자(形聲字)이다. 이러한 허신의 설명에 단옥재는 경전에서는 겸양(謙讓)으로 많이 쓰였다는 주석을 덧붙였다.²²⁾ 그런데 단옥재의 주석에 쓰인 겸양이라는 단어의 ‘攘’자가 讓이 아닌 攘으로 쓰인 점에 주목하였다.

師爲公(2001)은 讓자가 고대중국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설명한다. 즉, 讓자가 본래의미인 ‘책망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

22) 經傳多以爲謙讓字。

로도 쓰이고, 또 ‘사양하다’는 의미항목을 가진 문자를 계승했다는 것이다. 그는 朱駿聲이 『說文通訓定聲』에서 讓자는 攘자의 가차자(假借字)라고 한 것을 예로 들면서 고대중국어에서 讓자는 아주 오래 전부터 攘자의 가차자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고대중국어에서 讓자가 갖는 두 가지 의미 중, 현대중국어에서는 让자의 본래 의미인 ‘책망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嚷을 쓰고, 让자는 攘자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다’는 의미를 전달해 나타낸다고 서술한다.

章家誼(2005)도 역시 让의 ‘책망하다’ 의미를 현대중국어에 와서는 방언에서 ‘嚷’자가 대체하여 쓰이고 있는 용법이라고 하였다. 그는 讓자는 상고시기에 책망하단의 의미로 많이 쓰였다고 하면서 『小爾雅·廣義』를 그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18) 詰責以辭謂之讓。

責을 풀이하는 말로써 讓을 일컫는다.

이러한 용법은 중고시기 전후에 서면에서 사용빈도가 줄었지만, 구어 중에 계속 존재해오면서 구어 중의 상용어로 일컬어졌고, 특히 방언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讓은 ‘사양하다(辭讓)’라는 의미의 중심이 되는 또 다른 의미항목을 담당한다고 이야기하면서 讓자는 攘의 가차자(假借字)라고 하였다. 『설문해자』에서 攘자의 의미는 ‘양보하다’²³⁾이며, 단옥재는 주(注)에서 攘자는 ‘讓자의 옛날 자(字)’²⁴⁾라고 설명한 것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讓자는 본래 ‘책망하다’는 의미로 쓰이다가, ‘양보하다’는 의미의 攘자의 가차자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대중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让자의 기본의미인 ‘양보하다’의 의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23) 攘: 推也.

24) 攘, 古讓字.

2.2 让의 확장의미

2.2.1 근대중국어 让의 의미

让은 사역과 피동 두 가지 의미로 구어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된다. 현대중국어에서 让은 주로 사역동사로서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원명(元明)시기에 시작되어 청(淸)나라 시기에 들어서면서 让의 피동 용법이 사용되었고²⁵⁾, 현재는 상당수 구어에서 让이 피동문의 표지로 쓰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周一民(1998)은 북경의 구어에는 피동표지 被를 사용하지 않고 동작의 행위자(施事)를 이끌어낼 때 让과 叫를 주로 사용하며 간혹 给를 쓴다고 하였다.²⁶⁾ 다음의 예문을 보자

(19) 既这么说就把匣子(扇子)搬了出来, 让他尽力的撒, 岂不好?

《紅樓夢》²⁷⁾

또한 이렇게 말한 이상 부채를 옮겨 내와서 그로 하여금 힘껏 찢기 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20) 幸而早年留下一子, 名唤贾珍, 因他父亲一心想作神仙, 把官倒让他袭了。

《紅樓夢》²⁸⁾

다행히 일찍이 아들 하나를 두어 이름을 賈珍이라 불렀는데 그 부친이 늘 신선이 되고자하여 관청이 그에 의해 습격당하였다.

(19-20)은 청대의 문학작품인 《紅樓夢》에 나오는 대화이다. (19)의 주어인 ‘扇子’는 생략되어 있다. 이때 주어는 찢김을 당하는 피행위자이다. (20)에서 행위의 주체는 목적어인 ‘他’이다. 즉 그가 사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사역문에서 피사역자였던 목적어가 피동문으로 바뀌면서

25) 石毓智(2005) 참고.

26) 이지현(2007:156) 재인용.

27) 이지현(2007:165) 재인용.

28) 상동

행위자로 그 역할이 변화하는 것이다. 章家誼(2005:25)는 让이 피동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논하였다.

- ① 주어가 피행위자이다.
- ② 让 뒤의 동사나 동사구가 피동을 나타내야 하고 이는 반드시 타동사여야 한다.
- ③ 让+N의 구조는 성립될 수 없다.
- ④ 의미의 중심이 뒤의 술어에게로 이동한다.
- ⑤ 让 뒤의 명사는 반드시 생명이 있거나 혹은 어떤 행위의 행동의 원천이나 원인이어야 한다.
- ⑥ 묘사하는 상황은 이미 발생한 것이다. 즉 과거이다.²⁹⁾

(19-20)의 문장은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피동문이다. 让이 청대 소설인 《紅樓夢》에서 보이는 것을 통해 청대에 피동용법으로 쓰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紅樓夢》과 비슷한 시기에 쓰인 청나라 장편소설 《兒女英雄傳》³⁰⁾을 언어 분석 자료로 삼았다. 《兒女英雄傳》에 나타나는 让자문을 추출하여 예문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근대중국어 让의 의미와 쓰임을 살펴보고 이것이 현대중국어에 어떻게 변화하여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兒女英雄傳》에는 총 309개의 让자문이 등장한다. 이 중 60%정도인 186개 문장이 사역의미 让자문으로 쓰였다. 그리고 35%가량의 110개

29) ①主语为受事。

②“让”后面的动词或动词结构可能表示被动，即必须是及物动词。

③“让N”不自足，是非语法的。

④语义重心移到并落在后面的Vp 上。

⑤N 应该是有生的或者是某个行为的行动源、起因。

⑥描述的情况已经实现，即是已然。

30) 청대 문장(文康)의 장편소설이다. 원래 35회인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41회이다. 이 작품은 유창한 배경 구어를 구사하고 있다. 인물과 사건의 묘사가 아주 생동감 있고, 섬세하다. 구성도 비교적 탄탄한 편이다. 고대백화소설(古代白話小說)중 인정받는 작품 중 하나이다. 『辭海』, 辭海編輯委員會編.

문장에서 让자는 동사로 쓰였다. 그리고 4%가량의 13개 문장이 ‘겸양’ 의미 让자문으로 쓰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兒女英雄傳》을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兒女英雄傳》이 당시의 구어를 많이 반영했을 것이라 기대하였고, 따라서 구어에서 피동 의미로 많이 쓰이는 让자문을 다른 텍스트 보다 많이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让자문 309개 문장 중에서 위에서 예로 든 《紅樓夢》의 문장 (19-20)과 같은 완전한 형태의 피동 의미 让자문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退让’이 함께 쓰이면서 하나의 의미 즉, ‘양보하다’로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사역 의미 让자문이 피동 의미로 문법화 하는 과정 중³¹⁾에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피동 의미 让자문이 청대에 완전히 보편화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兒女英雄傳》에 나타나는 ‘겸양’ 의미 让자문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자. 《兒女英雄傳》에서 ‘겸양’ 의미로 쓰인 문장은 총 13개였다. 이 가운데 4개의 문장 즉, ‘겸양’ 의미 让자문의 30%에 해당하는 문장이 어기사 혹은 동사 중첩의 형식으로 쓰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1) 让我在这里静一静儿罢。

나는 여기에서 안정을 좀 찾을게.

(22) 让我瞧瞧他几颗脑袋！

그에게 몇 개의 머리가 있는지 내가 좀 봐야겠어!

(21)은 어기사 罢와 동사의 중첩 형태인 静一静儿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2)는 동사가 瞧瞧와 같은 중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대중국어 ‘겸양’ 의미 让자문에도 많이 쓰이는 형태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3) 让我们还是做朋友吧！

그래도 우리 친구합시다!

31)언어의 발전 과정 중에 의미를 강화하기 위하여 두개의 비슷한 혹은 같은 의미의 글자가 자주 함께 출현한다. 章家誼(2005).

(24) 不要为难和平, 让我跟他谈谈。

和平을 난처하게 하지마. 내가 그와 이야기해볼게.

(23)³²⁾의 문장 끝에는 어기사 吧가 출현한다. 어기사 吧는 문장을 청유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21)과 (23)을 살펴본 결과 근대중국어 ‘겸양’ 의미 让자문에는 현대중국어의 어기사 吧의 다른 형태인 罢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태만 다를 뿐, 그 역할은 현대중국어의 吧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어기사 吧는 문장을 청유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사묘(2013:19)은 중국어의 청유문은 주로 제안 형식으로 발화한다. 청유문은 발화가 친교를 목적으로 부담과 강제성을 주지 않으면서 고려의 여지가 있는 일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청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공손표현이라 볼 수 있다. 중국어의 청유형 요청 발화는 대부분 ‘-吧’로 구성된 어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겸양’ 의미 让자문의 문장 끝에는 어기사 吧가 출현하는 것은 화자의 의사를 보다 겸손하게 발화하려는 의도를 보충해 주는 것이다. (22)과 (24)는 동사중첩의 형식을 보인다. 장홍석(2004:45)은 동사중첩이 시험 삼아서 어떠한 동작을 하여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는 ‘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24)는 겸양을 나타내는 让 이외에도 동사 谈의 중첩형이 ‘시도’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겸양’ 의미 让자문이 동사 중첩형과 같이 쓰이는 이유도 화자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시도해 본다는 정도로 그 의미를 약화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서 让 + 어기사, 让 + 동사중첩의 겸양문 형태는 근대중국어에서부터 시작되어 현대중국어 ‘겸양’ 의미 让자문으로 이어져 내려온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让 + 어기사, 让 + 동사중첩의 형태가 ‘겸양’ 의미 让자문의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해 주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32) 이는 앞 장의 예문 (12)와 같은 문장이다. 다만 편의를 위하여 번호를 새로 매기었다. 이후에도 앞의 예문을 다시 쓸 때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다.

2.2.2 현대중국어 让의 의미

현대중국어에서 让은 ‘양보하다’라는 동사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사역과 피동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이처럼 문장에서 다양한 의미 기능을 하는 让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현대중국어에 쓰이는 让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현대중국어 让의 의미 쓰임을 크게 본동사 의미, 사역의미, 피동의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사역의미의 让자문은 보다 상세히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중국의 학자들은 사역의미 让자문을 다음과 같이 让₁과 让₂로 분류하였다. 鄧守信(1991)은 让₁을 사역자는 피사역자가 종사하는 어떤 일의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로, 让₂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의 바람에 대해 양보하는 것으로 각각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曹冬雪(2009)는 让₁은 사역의미로, 사역자가 피사역자를 시켜서 사역행위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허락의미의 让₂는 사역자가 희망, 바람을 가지고 피사역자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위 학자들의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다.

(25) 这个城市让我伤心。

이 도시는 나를 마음 아프게 해.

(26) 她这个脸色可忒让人受不了, 出来进去没个笑模样!

그녀의 표정은 사람들을 정말이지 힘들게 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웃는 모습을 못 봤어!

(25)는 这个城市가 사역자이고 我가 피사역자이다. 피사역자인 我是 사역자인 这个城市로 인해 마음이 아픈 상태에 놓이게 된다. (25)의 这个城市는 我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我的 바람에 这个城市가 양보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鄧守信의 让₁과 让₂ 의미 중 어디에도 속하기 힘들다. 또한 (25)의 这个城市는 我를 마음 아프게 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这个城市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피사역자인 我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또한 这个城市는 我的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프지 않게 허락 혹은 불허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25)는 曹冬雪(2009)의 让의 의미 분류인 让₁과 让₂ 중에서도 속하는 곳을 찾을 수 없다. (26)은 사역자 她这个脸色가 피사역자인 人을 힘들게 한다. (26)도 (25)와 마찬가지로 위의 두 학자의 让의 의미 분류 중 어느 곳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역의미의 让자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让자문의 의미를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25)의 사역자인 这个城市와 (26)의 사역자 她这个脸色는 각각의 피사역자인 我가 마음 아프게 하고 人이 힘들어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사역의미 让자문에 기존 학자들의³³⁾ 사역의미와 허락의미 이외에 초래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사역의미 让자문을 ‘시키다’ 의미를 나타내는 让자문, 원인인 결과를 나타내는 ‘초래하다’ 의미의 让자문, 그리고 ‘허락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让자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에는 ‘겸양’ 의미 让자문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 让의 의미 쓰임

기본의미	확장의미		
양보하다	사역	시키다	
		초래하다	
		허락하다	허락하다
	피동		겸양하다

〈도표1〉의 분류를 토대로 《我愛我家》의 让자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³⁴⁾ 《我愛我家》에서 추출한 让자문은 총 1111문장이다. 이 중

33) 周文華(2007)과 陳長虹(2011)은 让을 让₁과 让₂의 두 가지 의미가 아닌 명령 의미, 허용의미, 사역의미 세 가지 의미로 분류한다.

34) 앞에서 밝혔듯이 《我愛我家》는 드라마 극본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자료보다 현대 중국어의 구어를 잘 반영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예문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기본 의미는 137문장(12%), 사역의미는 895문장(80%) 그리고 피동 의미는 79(8%)문장이었다. 사역의미 让자문을 세분화해보면 ‘시키다’ 의미가 596문장, ‘초래하다’ 의미가 93문장, ‘허락하다’ 의미가 206문장이다. 다시 ‘허락하다’ 의미의 문장들을 분석하면 ‘허락하다’ 의미가 182문장, ‘점양’ 의미가 24문장이었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현대중국어 让자문의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7) 没人给我让座儿……

아무도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아……

(28) 朝阳，你就让一点步嘛。

朝阳，네가 양보 좀 해라.

(27-28)에서 让은 ‘양보하다’는 让의 기본 의미로 쓰인 문장이다. 고대중국어부터 쓰였던 让의 기본 의미가 현대중국어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역의미를 나타내는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29) 您让圆圆帮着他？

당신이 圆圆에게 그를 도우라고 시켰나요？

(30) 回家主持日常工作，也让我松快松快。

집에 와서 일상생활을 돌보게 되니, 나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31) 明天早上再解释吧，让他今儿晚上先做个好梦！

내일 아침에 다시 설명합시다. 그가 오늘밤은 좋은 꿈꾸게 해줍니다.

(32) 让我去吧。

내가 좀 갈게요.

(29)-(32)는 사역의미로 쓰인 让자문이다. (29)는 피행위자 ‘您’이 ‘圆圆’에게 ‘他’를 도우라고 시키는 문장이다. (30)은 ‘일상생활을 돌보게

된 것’이 원인이 되어 ‘我’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문장이다. (31)은 ‘他’에게 ‘좋은 꿈을 꾸도록’ 허락해 주는 문장이고, (32)는 ‘我’가 ‘가겠다’는 문장이다. 이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상대방의 허락 여부가 중요치 않다. 그러나 피행위자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화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 겸양의 문장이다. 이처럼 현대중국어 사역의미 让자문은 그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33) 小兰让我给赶跑了。

小兰은 나에게 쫓겨났다.

(33)은 ‘我’에 의해 ‘小兰’이 ‘쫓김’을 당하는 형태의 피동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让자문은 피동표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7-33)에서 보이듯이 현대중국어의 让자문은 ‘X 让 Y+Z’라는 같은 구조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현대중국어 구어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让자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让자문을 그 의미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3 소결

이제까지 让자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다음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让자의 단어 의미 분석이다. 让자의 기본의미를 살펴보고, 让자가 지금의 ‘양보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갖게 되기까지의 변천과정을 알아보았다. 그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让자는 본래 ‘서로 책망하다’는 의미를 갖는 형성자였다. 차츰 攘자의 가차자로서 ‘사양하다, 양보하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현재 让자의 기본의미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었던 ‘책망하다’라는

의미는 현대중국어에서는 嚷자가 대신하고 있다.

둘째, 让의 확장의미 분석이다. 让은 본동사의 쓰임 이외에도 사역의미와 피동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쓰임이 있는 让의 확장의미를 근대중국어와 현대중국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근대중국어 让의 쓰임을 살펴보기 위해 청나라 장편소설인 《兒女英雄傳》을 분석하였다. 근대중국어에서 让은 동사, 사역의미 그리고 사역의미 내에서 ‘겸양’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兒女英雄傳》에서는 피동의미로 쓰인 让자문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피동문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역의 의미가 점차 약해지는 과정중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청대(清代)에 피동의미 让자문의 사용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让자문의 변천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대 문헌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중국어 让의 쓰임을 살펴보기 위해서 《我愛我家》의 예문을 사용하였다. 현대중국어 让자문은 동사, 사역의미, 피동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 중 사역의미는 보다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사역의미 안에는 ‘시키다’, ‘초래하다’, ‘허락하다’의 의미가 있다. 이 중 ‘허락하다’ 의미에는 ‘겸양’의 의미가 속해 있다. 또한 현대중국어에서 让자문은 피동의미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3. 사역의미

3.1 사역자 분석

사역의미를 나타내는 让자문의 의미 차이는 통사 구조에 반영되어 각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의 결합 조건을 결정한다. 이에 본 절은 사역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를 의미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각 의미별 사역자가 갖는 사건에 대한 통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让자문의 통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형을 이루는 주어, 목적어, 술어 등 개별 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 절에서는 개별 요소 중에서 사역의미를 나타내는 让자문의 주어부에 해당하는 사역자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 가지 의미로 분류한 사역의미 让자문의 의미별 통사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让자문의 사역자는 'X 让 Y+Z' 구조에서 X에 해당한다. 이제 X에 해당하는 사역자를 '시키다', '초래하다', '허락하다' 의미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34) 我让小张做饭去!

나는 小张이 밥하러 가게 했어!

(35) 我让志新把他那个屋子腾出来了。

나는 志新에게 그의 방을 빼라고 했어.

(36) 我让他研究一下这个问题。

나는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했어.

(37) 他们单位让他去搞开发公司去了。

그들의 회사가 그에게 개발공사를 담당하러 가게 했다.

(38) 学校已经让志国去了解情况了。

학교는 이미 志国에게 가서 상황을 조사하게 했다.

(34)는 사역자 ‘我’가 ‘小张’에게 밥을 하러 가라고 시키는 문장이다. (35-36)도 (30)과 같이 사역자인 ‘我’가 피사역자인 ‘志新’과 ‘他’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킨 문장이다. (37-38)은 사람으로 구성된 기관인 ‘单位’와 ‘学校’가 피사역자인 ‘他’와 ‘志国’를 가도록 시킨다. 이처럼 ‘시키다’ 의미让자문의 사역자는 피사역자 Y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지시하는 주체로서, 유정물의 특징을 가진 성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시키다’ 의미让자문의 사역자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람으로 구성된 기관, 단체 등이 나온다.

다음으로 ‘초래하다’ 의미让자문의 예문을 살펴보자.

(39) 这些天让您受了这么多的委屈。

요 며칠이 너를 이렇게나 괴롭게 했구나.

(40) 让她也着急。

그녀도 마음 졸이게 되겠지.

(41) 现在有些事实在是让人生气。

요즘의 이러한 일들은 정말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42) 你们在家也是让我生气……

너희들이 집에 있는 것도 나를 화나게 해……

(43) 您说这话可有点儿让我伤心。

당신의 이런 말은 나를 슬프게 해요.

(39)의 사역자는 ‘这些天’인데, 이는 ‘요 며칠 동안 일어난 일 혹은 사건’을 함의한다. ‘这些天’이 원인이 되어 ‘您’이 괴로운 상태에 처한 것이다. (40)에서는 사역자가 생략되어있다. 이 문장의 앞 문맥을 살펴보면, ‘여러 여자들이 그를 쫓아다니고 있다고 알려주는 사건’이 나온다.³⁵⁾ 이

35) 예문 (36) 앞 문맥

孟朝阳：喂圆圆，你还有什么别的要嘱咐的没有？

圆圆：嗯还有还有，你一定要老显得那么痴情，装出一幅满不在乎的样子来，告诉她好些女的追你

孟朝阳：啊对！对对……

圆圆：让她也着急

사건이 원인이 되어 ‘她’가 마음 졸이게 되는 것이다. (41-43)도 역시 让 앞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뒤의 결과를 초래하는 문장이다. 이때 사역자로는 사건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오기도 한다.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사람을 나타내거나 사물, 사건을 나타내는 성분이 모두 가능하다. 단지 그 사역자가 어떤 결과나 상태를 초래하는 원인 성분이면 되는 것이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를 알아보자.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피사역자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허락하거나 불허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44) 你让圆圆把话说完, 圆圆, 姥姥怎么你了?

圆圆이 말을 다 마치게 해주세요. 圆圆, 외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했어?

(45) 刚才我这位大哥不让我说话, 现在我能说几句么?

좀 전에는 형님이 내가 말도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몇 마디 좀 해도 될까?

(46) 你们让我清静一会儿。

너희들 나 좀 조용히 있게 해줘라.

(47) 伯父, 让我自我介绍一下吧。

큰아버지, 제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48) 我可是实在盯不住了, 要不今天咱们就先找到这, 让我也休息一下。

근데 나는 이제 쳐다보기도 힘들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찾고, 나 좀 쉬게 해줘라.

(44-48)의 사역자는 모두 사람이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나 인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가 사역자의 자리에 출현한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사역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사역자의 생략

이다. 전체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30%가량의 문장에서 사역자가 생략되어 있다.

(49)好啦, 就让他们赢一回吧。

좋아. 개네가 한 번 이기게 허락해주자.

(50)干脆让他跑到台湾去算了。

아예 그가 대만으로 가게하면 되는 거 아니야.

(51)那就让她好好养病, 咱自己做饭不得了?

그러면 그녀는 잘 요양하게해주고, 우리가 스스로 밥해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52)让她一个人自个儿反思一下也好。

그녀가 혼자 반성하게 해주는 것도 좋아.

(53)不要追! 让她去!

쫓아가지마! 그녀가 갈 수 있도록 해!

(49-53)은 모두 사역자가 생략된 문장이다. 그러나 생략된 사역자는 대부분 문맥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때 문장의 의미는 화자의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예가 많았다.

이처럼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에는 주로 인물이나 인물로 구성된 단체 등을 나타내는 성분, 즉 유정물의 특성을 가진 성분이 구성 성분으로 출현한다. 또한 사역자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단, 이때 생략된 사역자는 문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중 ‘겸양’ 의미 문장을 살펴보자. ‘겸양’ 의미 让자문은 사역자가 출현하지 않고, 피사역자가 ‘나 혹은 나를 포함하는 우리’로 한정된다. 따라서 ‘허락’의 의미는 약해지고 대신 피사역자의 바람이나 의지가 더욱 드러나는 문장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54) 让我们以热烈的掌声, 向他老人家表示感谢。

우리 뜨거운 박수로, 어르신에게 감사를 포함시다.

(55) 让我们此次会谈能够在亲切友好的气氛中进行……

우리의 이번 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56) 让我享受点孤独吧……

내가 고독을 즐기게 좀 놔둬……

(57) 我也没说是你, 让我再好好测一测。

나도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다시 한 번 잘 추측해볼게.

(58) 临死以前, 让我再最后见见他们, 那该是多么美好的结局啊。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마감인가!

(54)는 박수를 치기를 원하는 피사역자 ‘我们’의 의지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55)는 ‘会谈’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피사역자의 바람이 나타나는 문장이다. (56-58)도 마찬가지로 피사역자의 바람 혹은 의지가 드러나는 문장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겸양’ 의미 让자문은 사역의미 중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에 속해서 형식적으로 허락을 구하는 문장이다. 사실 ‘겸양’ 의미 문장에서 사역자의 허락 여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사역자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화자는 자신의 행동을 할 것이다. 다만 사역자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 방식을 써서 보다 겸손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겸양’ 의미 让자문은 사역자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피사역자의 바람 혹은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생략된다.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시키다’ 의미와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에는 유정물 사역자가 쓰인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중 ‘겸양’ 의미는 사역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 쓰일 수 있다.

이제 사역자의 통제도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통제도는 힘과 관련된 사물 간의 상호작용이다.

Talmy(1988)는 이러한 힘의 역학관계를 언어에 적용한 학자이다. 그는 ‘힘 역학(force dynamic)’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존재가 힘과 관련되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해 다룬다. 즉, 힘 역학에서 다루는 것은 힘의 사용, 힘의 저항, 저항에 대한 극복, 힘 사용의 방해 및 그 방해의 제거 등을 포함한다. Talmy가 제시한 힘 역학을 가지고 사역 구조를 분석하면서 Lakoff(1987), Song Seokchoong(1988), 박정운(2003)은 ‘통제도 참수’를 이용하였다. 사역자의 통제도란 사역자가 피사역자를 통제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Comrie(1989)는 피사역자의 통제도를 가지고 사역 구조를 분석하였다. 피사역자의 통제도란 피사역자가 사역 구조 안에서 가지고 있는 통제력의 정도를 말한다.³⁶⁾ 본고는 Talmy가 제시한 힘 역학을 선행 연구자들이 사역 연구에 활용했던 ‘통제도’라는 용어로 지칭할 것이다. 사역문이라는 언어구조에 내재되어 사역자와 피사역자의 영향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통제도’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역의미 让자문에서 사건에 대한 통제도란 행위자 혹은 피행위자가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지 못하게 하는 능력 여부의 문제이다. 통제도와 관련해서는 ‘초래하다’, ‘시키다’, ‘허락하다’의 의미 순으로 분석할 것이다.

먼저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를 살펴보자.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사건의 원인이 되어 피사역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때 사역자는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 가능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59-a) 这些天让您受了这么多的委屈。

요 며칠이 너를 이렇게나 괴롭게 했구나.

(59-b) *这些天让您受了这么多的委屈。可是您没受委屈。

요 며칠이 너를 이렇게나 괴롭게 했구나. 그러나 너는 괴롭지 않았다.

36) 박은석(2011:47)

(60-a) 现在有些事儿啊, 实在是让人生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사람들을 화나게 해.

(60-b) *现在有些事儿啊, 实在是让人生气。但是人们没生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사람들을 화나게 해. 그러나 사람들은 화내지 않아.

(61-a) 您说这话可有点儿让我伤心。

당신의 이런 말은 나를 슬프게 해요.

(62-b) *您说这话可有点儿让我伤心。但是我一点都不伤心。

당신의 이런 말은 나를 슬프게 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59-a)는 ‘这些天’이 원인이 되어 피사역자인 您이 괴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피사역자가 괴로운 결과를 얻었는데 (59-b)처럼 이를 부정하는 문장이 출현하면 이러한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60-a)는 ‘现在有些事儿’이 원인이 되어 피사역자인 ‘人’을 화나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 그런데 (60-b)처럼 이미 일어난 결과를 부정하는 후속문장이 덧붙여 나오면 이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역자가 원인이 되어 초래된 사건의 결과를 후속문장이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키다’ 의미 让자문에서 사역자의 사건에 대한 통제성에 대해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피사역자 Y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자 즉, 유정물이다. 다음의 문장을 보자.

(63-a) 圆圆, 赶紧给姥姥找电话让她明天搬过来。

圆圆, 얼른 할머니께 전화기 찾아다 드려서 그녀가 내일 이사 오게 해.

(63-b) 圆圆, 赶紧给姥姥找电话让她明天搬过来。可是她拒绝了。

圆圆, 얼른 할머니께 전화기 찾아다 드려서 그녀가 내일 이사 오게 해. 그러나 그녀는 거절하였다.

(64-a) 我让小张做饭去!

나는 小张이 밥하러 가게 했어!

(64-b) 我让小张做饭去! 可是小张不去了。

나는 小张이 밥하러 가게 했어! 그런데 小张은 가지 않았어.

(65-a) 我让他研究一下这个问题。

나는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했어.

(65-b) 我让他研究一下这个问题。 不过他没有研究过这个问题。

나는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했어.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어.

(63-b)는 (63-a)의 문장에 ‘可是她拒绝了’라는 문장을 덧붙인 것이다. 즉 사역자가 시킨 동작을 피사역자가 부정하는 후속 문장을 삽입한 것이다. (64-b)와 (65-b)도 각각 (64-a)와 (65-a)의 사역 행위를 부정하는 문장이다. 이러한 문장은 성립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사역 행위를 지시할 수는 있지만, 사역 행위의 수행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피사역자에게 어떤 동작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 지시의 수행여부까지는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후속문장은 사역자가 요구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와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를 비교해보면,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가 사역 행위에 대한 통제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를 살펴보자. 사역자는 목 피사역자가 원하는 동작이나 행위를 허락하거나 불허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허락을 해 줄 수 있는 주체인 유정물이 사역자의 자리에 출현한

다. 다음의 예를 보자.

(66-a) 警察警……警察他不让我进。

경찰……그 경찰이 나를 못 들어가게 했다.

(66-b) 警察警……警察他不让我进, 可是我进来了。

경찰……그 경찰이 나를 못 들어가게 했지만, 나는 들어갔다.

(67-a) 好啦, 就让他们赢一回吧。

좋아. 개네가 한 번 이기게 허락해주자.

(67-b) 好啦, 就让他们赢一回吧. 但是他们输了。

좋아. 개네가 한 번 이기게 허락해주자. 그러나 그들은 졌다.

(68-a) 不要追! 让她去!

쫓아가지마! 그녀가 갈 수 있도록 해!

(68-b) 不要追! 让她去! 不过她不去。

쫓아가지마! 그녀가 갈 수 있도록 해! 그러나 그녀는 가지 않았다.

(66-b)는 (66-a)에 후속하는 문장을 덧붙인 것이다. ‘警察’가 ‘我’를 못 들어가게 했지만 피사역자가 사역자의 결정에 반(反)하는 즉, 들어가는 행동을 해도 문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67-b)와 (68-b)도 마찬가지이다. 사역자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피사역자들이 사역자의 허락에 반하는 사역행위의 결과를 가져와도 문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는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피사역자의 행위의 결과까지는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낮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역자의 허락이나 불허가 피사역자의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초래하다’, ‘시키다’, ‘허락하다’ 세 가지 의미 중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낮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역자의 통제도란 사역자가 피사역자를 통제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사역자의 통제도는 결과사건이 사역자의 의도된 사역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즉, 사역자가 시키거나 허락한 사역행위, 혹은 사역자가 원인이 되는 사역행위가 결과 사건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여부로 통제도의 크기를 알아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사역자의 통제도는 ‘초래하다’ 의미 > ‘시키다’ 의미 > ‘허락하다’ 의미 순으로 나타난다. 즉,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높아서 후속 문장으로 사역자가 원인이 되는 사건의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 반면 ‘허락하다’ 의미의 사역자는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낮아서 비록 피행위자가 사건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피사역자는 이에 상관없이 피사역자의 의지대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3.2 피사역자 분석

본 절에서는 개별 요소 중에서 사역의미를 나타내는 让자문의 피사역자의 성질을 예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앞 소절의 사역자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결 지어 살펴본다면 피사역자에 대해 보다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X 让 Y+Z’ 구조에서 Y에 해당한다. 이제 Y에 해당하는 피사역자를 ‘시키다’, ‘초래하다’, ‘허락하다’ 의미 순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피사역자에게 사역행위를 시키는 주체로 유정물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69) 我让小张做饭去!

나는 ‘小张’이 밥하러 가게 했어!

(70) 他们单位让他去搞开发公司去了。

그들의 회사가 그에게 개발공사를 담당하러 가게 했다.

(71) 你快让你妈坐下吧。

너는 얼른 너희 어머니를 앉으시게 해라.

(72) 燕红妹妹也不会让我们吃亏。

燕红의 여동생이 우리가 손해 보게 하지는 않을 거야.

(69)는 사역자 ‘我’가 피사역자 ‘小张’에게 밥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이다. (70)은 사역자 ‘他们单位’가 ‘他’를 가도록 하는 문장이다. (71-72)의 피사역자도 ‘你妈’와 ‘我们’으로 모두 생명이 있는 명사로 유정물이다. 본고가 살펴 본 ‘시키다’ 의미의 让자문 예문의 피사동자는 모두 유정물이다. ‘시키다’ 의미의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유정물인 사역자가 시킨 사역 행위나 사건을 주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행동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유정물이 피사역자 자리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를 살펴보도록 하자.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피사역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유정물과 무정물 모두가 사역자로 쓰일 수 있었다.

(73) 这些天让您受了这么多的委屈。

요 며칠이 너를 이렇게나 괴롭게 했구나.

(74) 让她也着着急。

그녀도 마음 졸이게 되겠지.

(75) 姐姐对不起你, 让你受委屈了……

언니가 너에게 미안해, 너를 힘들게 해서……

(76) 您说这话可有点儿让我伤心。

당신의 이런 말은 나를 슬프게 해요.

(73)은 피사역자인 ‘您’이 사역자인 ‘这些天’ 즉, ‘요 며칠 동안 일어난

일 혹은 사건'이 원인이 되어 괴로운 상태에 처한 것이다. (74)는 피사역자인 '她'가 앞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마음 졸이게 되는 것이다. (75-76)의 피사역자도 모두 사람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다. 이와 같이 본고가 《我愛我家》에서 조사한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 93개 문장 중 피사역자는 모두 인물을 나타내는 명사였다.

'초래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피사역자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人'이라는 명사가 자주 나온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77) 我刚刚18岁就退居二线当了顾问了, 好让人心酸呦!

내가 막 18세가 되었을 때, 2선으로 물러나 고문이 되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78) 现在有些事儿啊, 实在是让人生气。

요즘의 일들은,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79) 今天就这么懂礼貌了, 真让人高兴啊。

오늘 이렇게 예의 있게 행동해주니, 정말 기쁘구나.

(80) 李大妈一身旧社会习气让家人受不了。

李아주머니의 몸에 밴 구 사회의 나쁜 습관은 사람들을 견디기 힘들게 한다.

(81) 哎哟, 她这个脸色可忒让人受不了。

아이고, 그녀의 저 표정은 정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해.

(77)은 사역자 '我'가 18세에 고문으로 물러나게 된 일이 원인이 되어 피사역자인 '人'이 비통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문장의 실제 피사역자는 '人'이 아닌 '我'이다. 피사역자인 '我'가 느끼는 비통함을 다른 사람도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이 더해져 피사역자로 '我'가 아닌 '人'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78)은 사역자인 '有些事儿'이 원인이 되어 피사역자인 '人'을 화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문장에서도 피사역자인 '人'은 화자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피사역자가 느끼는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

의 확신이 담겨있는 것이다. (79-81)의 피사역자인 ‘人’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초래하다’ 의미의 让자문에서 피사역자가 ‘人’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93문장 중 19문장으로 전체 ‘초래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20%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피사역자에 대해 살펴보자.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사역자는 피사역자에게 사역 행위를 허락 혹은 불허하는 주체로서 유정물이 출현했다.

(82) 我妈晚上从来不让我出门儿。

우리 엄마는 여태까지 내가 밤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83) 哎, 这怎么说呢, 当然让你住下啦!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네가 머물게 해주지!

(84) 可他们都愿意单独和我组成小组, 不让那俩人参加。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오직 나와 조를 이루고 싶어 해서, 그 두 사람이 함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82)는 사역자인 ‘我妈’가 피사역자인 ‘我’가 밤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문장이다. (83)은 피사역자 ‘你’가 머물 수 있도록 화자가 허락해주는 문장이다. (84)의 사역자는 ‘他们’으로, 피사역자인 ‘那俩人’이 함께 조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82-84)의 피사역자는 모두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본고가 조사한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예문처럼 인칭대명사와 인명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에는 주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대명사, 즉 유정물의 특성을 가진 성분이 구성 성분으로 온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사역자의 허락 하에 어떠한 행동이나 사건을 진행해야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 중에서 앞서 살펴본 ‘겸양’ 의미에 해당하는 예문을 통해 ‘겸양’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85) 让我们以热烈的掌声, 向他老人家表示感谢。

우리 뜨거운 박수로, 어르신께 감사를 표합시다.

(86) 让我们此次会谈能够在亲切友好的气氛中进行……

우리의 이번 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87) 不要为难和平, 让我跟他谈谈。

평화를 난처하게 하지 마. 내가 그와 이야기 해볼게.

(85)는 피사역자 ‘我们’이 박수를 치고자 하는 의지가, (86)은 ‘会谈’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피사역자 ‘我们’의 바람이 담겨있다. (85-87)에서 볼 수 있듯이 ‘겸양’ 의미 让자문은 피사역자의 의지나 바람이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화자 자신인 ‘我’나 화자가 포함된 ‘我们’만이 피사역자에 올 수 있는 것이다. ‘겸양’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로는 오직 ‘我’나 ‘我们’만이 출현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시키다’ 의미의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행동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유정물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나 대명사인 유정물이다.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人’이라는 명사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피사역자가 느끼는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이 담겨있는 것이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도 일반적으로 생명이 있는 명사가 담당한다. 즉, 유정물이 쓰인다. 다만 ‘허락하다’ 의미 중 ‘겸양’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에는 ‘我’나 ‘我们’만이 올 수 있다. 또한 ‘겸양’ 의미 让자문은 피사역자 ‘我’나 ‘我们’의 바람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제 피사역자의 사건에 대한 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앞서 Comrie(1989)는 피사역자의 통제도란 피사역자가 사역 구조 안에서

가지고 있는 통제력의 정도를 말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피사역자의 통제도는 피사역자가 사역자의 사역행위나 사역의 결과를 부정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먼저 ‘시키다’ 의미 让자문에서 피사역자의 사건에 대한 통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사역자 X가 시킨 어떤 동작이나 사건을 행하는 행위자 즉, 유정물이다. 다음의 문장을 보자.

(88-a) 圆圆, 赶紧给姥姥找电话让她明天搬过来。

圆圆, 얼른 할머니께 전화기 찾아다 드려서 그녀가 내일 이사 오게 해.

(88-b) 圆圆, 赶紧给姥姥找电话让她明天搬过来。可是她拒绝了。

圆圆, 얼른 할머니께 전화기 찾아다 드려서 그녀가 내일 이사 오게 해. 그러나 그녀는 거절하였다.

(89-a) 我让小张做饭去!

나는 小张이 밥하러 가게 했어!

(89-b) 我让小张做饭去! 可是小张不去了。

나는 小张이 밥하러 가게 했어! 그런데 小张은 가지 않았어.

(90-a) 我让他研究一下这个问题。

나는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했어.

(90-b) 我让他研究一下这个问题。不过他没有研究过这个问题。

나는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했어.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어.

(88b), (89b), (90b)는 (88a), (89a), (90a)의 문장에 후속문장을 덧붙인 것이다. (88-b)의 피사역자 ‘她’는 사역자의 사역행위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89-b)와 (90-b)의 피사역자도 마찬가지로 사역행위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결과를 만들어 내도 문장은 성립 가능한 것

이다.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어떤 동작을 지시할 수는 있지만, 그 지시를 받는 피사역자는 사역자의 지시사항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즉,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피사역자에게 어떤 동작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피사역자는 사역자가 지시한 행동이나 사건을 꼭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후속문장에서 사역자가 요구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즉,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사건의 수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에서 피사역자의 사건에 대한 통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대명사들이었다.

(91-a) 现在有些事儿啊, 实在是让人生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사람들을 화나게 해.

(91-b) *现在有些事儿啊, 实在是让人生气。但是人们没生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사람들을 화나게 해. 그러나 사람들은 화내지 않아.

(92-a) 这些天让您受了这么多的委屈。

요 며칠이 너를 이렇게나 괴롭게 했구나.

(92-b) *这些天让您受了这么多的委屈。可是您没受委屈。

요 며칠이 너를 이렇게나 괴롭게 했구나. 그러나 너는 괴롭지 않았다.

(93-a) 您说这话可有点儿让我伤心。

당신의 이런 말은 나를 슬프게 해요.

(93-b) *您说这话可有点儿让我伤心。但是我一点都不伤心。

당신의 이런 말은 나를 슬프게 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91-a)의 사역자 ‘现在有些事儿’의 사건에 대

한 통제력이 높아서 (91-b)처럼 사건을 부정하는 후속문장이 덧붙여 나오면 이 문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91-b)의 피사역자인 ‘人’은 ‘现在有些事儿’이라는 원인에 의해 화가 난 상태가 되었다. 피사역자인 ‘人’은 이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 수 없다. 이는 (92-b), (93-b)도 마찬가지이다.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아주 높다. 따라서 사역자의 사역 행위를 받는 대상인 피사역자의 사건에 대한 통제도는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피사역자보다 강력한 통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역자가 원인이 되어 초래된 사건의 결과, 즉 피사역자의 상태나 사건을 후속문장이 부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를 살펴보자.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자신의 행동여부를 사역자에게 허락을 얻거나 불허당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94-a) 警察警……警察他不让我进。

경찰……그 경찰이 나를 못 들어가게 했다.

(94-b) 警察警……警察他不让我进，可是我进来了。

경찰……그 경찰이 나를 못 들어가게 했지만, 나는 들어갔다.

(95-a) 好啦，就让他们赢一回吧。

좋아. 개네가 한 번 이기게 허락해주자.

(95-b) 好啦，就让他们赢一回吧。但是他们输了。

좋아. 개네가 한 번 이기게 허락해주자. 그러나 그들은 졌다.

(96-a) 不要追！让她去！

쫓아가지마! 그녀가 갈 수 있도록 해!

(96-b) 不要追！让她去！不过她不去。

쫓아가지마! 그녀가 갈 수 있도록 해! 그러나 그녀는 가지 않았다.

(94-b)는 (94-a)의 문장에 후속하는 문장을 덧붙인 것이다. 사역자인 ‘警察’가 피사역자 ‘我’를 못 들어가게 했지만 피사역자는 사역자의 결정에 반(反)하는 즉, 피사역자인 ‘我’가 사역자 ‘警察’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들어가는 행동을 해도 문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95-b)와 (96-b)도 마찬가지이다. 사역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피사역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는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사역자에 의해 행위의 결과를 통제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사건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역자의 허락이나 불허가 피사역자의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초래하다’, ‘시키다’, ‘허락하다’ 세 가지 의미 중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높다.

위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피사역자의 통제도는 피사역자가 사역자의 사역 행위나 사역의 결과를 부정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피사역자의 통제도는 ‘허락하다’ 의미 > ‘시키다’ 의미 > ‘초래하다’ 의미 순으로 나타난다. 즉,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피사역자가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높고,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가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낮은 것이다.

3.3 사역 행위 분석

본 절에서는 사동의미 让자문의 사역 행위를 예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사역자 · 피사역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의미별 让자문의 통사적 특징을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역 행위는 술어를 통해 발현된다. 사역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에 대해서는 ‘시키다’, ‘초래하다’, ‘허락하다’ 의미의 순으로 알아볼 것이다.

먼저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술어를 살펴보자.

- (97) 和平, 快让你妈坐下吧。
 和平아, 너의 어머님더러 얼른 앉으시라고 해라.
- (98) 那我明天就让他们走!
 그렇다면 내가 내일 그들에게 가라고 하지!
- (99) 让咱姥姥踏踏实实地坐着……
 우리 외할머니한테 마음 편안히 앉아계시라고 해……
- (100) 爷爷让俺告诉你。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한테 알려주라고 하셨어.
- (101) 大姐让我问你。
 큰언니가 나에게 너한테 물어보라고 했어.

(97-101)의 술어는 ‘坐’, ‘走’, ‘告诉’, ‘问’으로 모두 동사들이다.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술어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지시 혹은 요구한 동작을 나타낸다. 본고가 《我愛我家》의 ‘시키다’ 의미 让자문 술어를 조사한 결과 ‘留, 住, 到, 洗, 去, 回去, 看, 见, 办事, 干’ 등과 같이 동작성을 가진 동사들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99)와 같이 동사 뒤에 ‘着’를 붙여서 동작의 지속을 나타낼 수도 있다.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술어로 형용사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는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어떤 성질이나 상태는 능동적으로 시켜서 나타나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키다’ 의미 让자문에는 술어로 형용사가 잘 쓰이지 않는 것이다.

이제 ‘초래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술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 (102) 真让人伤心……
 정말로 사람들을 속상하게 했어……
- (103) 这也不能全怪志新的妈妈, 爸爸, 你也有负责, 唉, 让女儿好为难噢……
 이건 志新的 엄마와 아빠만 탓할 수 없어. 너도 책임이 있어. 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다니……

(104) 老郑啊, 这个你不要再说下去了, 听着倒让人心酸啊。

老郑,

이거 이제 다시 이야기 하지 마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아프네.

(105) 今天就这么懂礼貌了, 真让人高兴啊。

오늘 이렇게 예의 바르게 굴다니, 정말 기쁘구나.

(102-103)의 술어는 앞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속상하게 하다’, ‘힘들게 하다’로 모두 부정적인 의미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이처럼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술어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심리 동사가 자주 쓰여서, 주로 결과의 발생이나 상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我愛我家》의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 술어로 쓰인 동사로는 ‘后悔, 惦记, 受累, 破灭, 吃惊, 委屈, 忧, 放心, 受不了, 原谅’ 등이 있었다. (104-105)의 술어는 ‘마음이 아프다’와 ‘기쁘다’로 형용사이다. 이처럼 ‘초래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사역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로 형용사가 오기도 한다. 이 외에도 《我愛我家》의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 술어로 쓰인 동사로는 ‘痛心, 累’ 등이 있었다.

(106) 回家主持日常工作, 也让我松快松快。

집에 와서 일상생활을 돌보게 되니, 나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107) 您给我讲讲, 也让我高兴高兴。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도 나를 기쁘게 한다.

(108) 让她也着着急。

그녀도 마음 졸이게 되겠지.

(106-107)의 술어는 ‘松快松快’와 ‘高兴高兴’으로 형용사 중첩형이다. (108)의 술어는 ‘着着急’로 동사의 중첩형이다. ‘초래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술어로는 동사와 형용사의 중첩형이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술어로

형용사나 동사 중첩형이 올 때에는 주로 심리나 감정을 나타내는 술어가 오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술어를 살펴보자.

(109) 那您干脆就别管他, 让他去吧!

그렇다면 너는 아예 그를 신경 쓰지 말고, 그가 가게 해 줘!

(110) (掏出一张彩票) 让你瞧瞧。

(복권을 꺼내며) 좀 보여줄게.

(111) 让她多睡会儿吧。

그녀가 잠을 좀 많이 자게 해주자.

(109-111)의 술어는 ‘去’, ‘瞧’, ‘睡’로 모두 동사들이다.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술어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허락 혹은 불허한 동작을 나타낸다. 따라서 술어는 동작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예문에서 언급된 동사 이외에도 《我爱我家》에 나온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술어에는 ‘说, 进, 贴, 抽烟, 享受, 知道, 看, 住, 回来, 吃饭, 帮助’ 등이 있다.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또 다른 특징은 ‘不让’ 혹은 ‘没让’과 같은 부정문과 ‘让不让’과 같은 의문문의 형식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112) 人家根本不让咱们去。

사람들은 시종 우리들을 가게 허락하지 않았다.

(113) 不让我们喝您也别喝……

우리를 못 마시게 할 거면 당신도 마시지 마세요.

(114) 师傅, 您可别让他们跑了。

선생님, 절대로 저들이 도망가게 하지 마세요.

(115) 你让不让她走?

너는 그녀가 가게 허락할거니?

(116) 你还让不让人说话了?

너는 말을 하게 할 거니 말거니?

(112-113)은 ‘不让’이 쓰인 부정문이고, (114)는 ‘别让’이 쓰인 부정문이다. (115-116)는 ‘让不让’이 쓰인 의문문이다.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에서는 위와 같이 부정문과 의문문이 많이 쓰인다. 그 중 (112-114)와 같은 부정문은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 총 182개 문장 중 49개 문장 즉 26%가 넘는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115-116)과 같이 ‘让不让’이 쓰인 의문문은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 총 182개 문장 중 9개 문장으로, 5% 정도를 차지하였다.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은 사역자가 피사역자의 행위를 허락 혹은 불허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허락의 여부를 묻는 의문문이나 불허의 문장인 부정문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 중에서 ‘겸양’ 의미 让자문의 술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17) 让我去吧。

내가 좀 갈게요.

(118) 不要为难和平, 让我跟他谈谈。

和平을 곤란하게 하지 마. 내가 그와 이야기해볼게.

(119) 让我再看一眼嘛!

내가 한 번 더 봐볼게!

(117-119)의 예문에서 술어는 去, 谈, 看으로 모두 동사이다. 이 외에도 《我愛我家》에 나온 ‘겸양’ 의미 让자문의 술어에는 ‘说, 躲, 谈, 做, 去, 回来, 约定, 杀, 看, 找, 测, 见, 来, 当’등이 있었다. ‘겸양’ 의미 让자문의 술어 술어의 특징은 동작동사가 많다는 점이다. ‘겸양’ 의미 让자문은 피사역자인 ‘나’ 혹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문장이다. 다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대방의 허락

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 표출이 용이한 동작이나 행위를 드러내는 동작동사가 많이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술어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지시 혹은 요구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성을 가진 동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초래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술어는 주로 결과의 발생이나 상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술어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주로 부정적인 심리 동사가 자주 쓰이고 형용사 술어가 오기도 한다.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술어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허락 혹은 불허한 동작을 나타낸다. 따라서 술어는 동작성을 띄는 동사가 많이 온다. ‘겸양’ 의미 让자문의 술어에도 동작과 관련된 동사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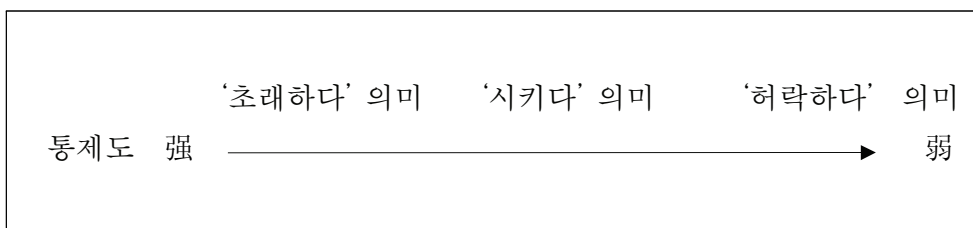
3.5 소결

이상에서 사역의미 让자문을 통사론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음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사역자 분석이다. ‘시키다’ 의미와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에는 유정물 사역자가 쓰인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중 ‘겸양’ 의미는 사역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에는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 쓰일 수 있다.

사역자의 통제도는 ‘초래하다’ 의미 > ‘시키다’ 의미 > ‘허락하다’ 의미 순으로 나타난다. 즉,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는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높아서 후속 문장으로 사역자가 원인이 되는 사건의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 반면 ‘허락하다’ 의미의 사역자는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낮아서 비록 사역자가 사건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피사역자에게 상관없이 피사역자의 의지대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사역자의 통제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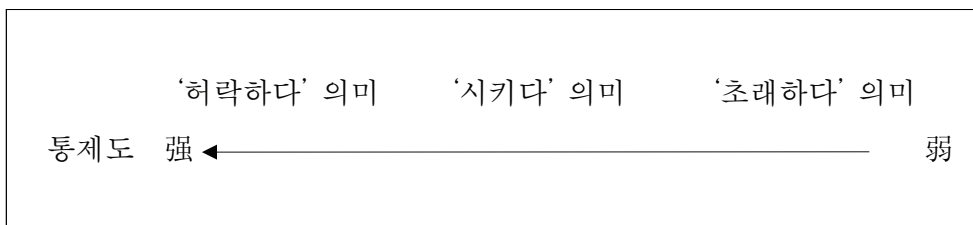
〈표 3-1〉 사역의미 让자문 사역자 통제도 비교



둘째, 피사역자 분석이다. ‘시키다’ 의미와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일반적으로 생명이 있는 명사가 담당한다. 즉, 유정물이 사역자로 쓰인다. 다만 ‘허락하다’ 의미 중 ‘겸양’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에는 ‘我’나 ‘我们’만이 올 수 있다. 또한 ‘겸양’ 의미 让자문은 피사역자 ‘我’나 ‘我们’의 바람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나 사물 명사, 추상명사, 대명사 등 다양한 체언구조가 나올 수 있다. ‘초래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人’이라는 명사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피사역자가 느끼는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이 담겨있는 것이다.

피사역자의 통제도는 ‘허락하다’ 의미 > ‘시키다’ 의미 > ‘초래하다’ 의미 순으로 나타난다. 즉,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피사역자가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높고,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가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낮은 것이다. 피사역자의 통제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사역의미 让자문 피사역자 통제도 비교



마지막으로 사역 행위 분석이다.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술어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지시 혹은 요구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성을 가진 동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초래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사역 행위는 감정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심리 동사가 자주 쓰이고 형용사 술어가 오기도 한다.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술어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허락 혹은 불허한 동작을 나타낸다. 따라서 술어는 동작성을 띄는 동사가 많이 온다. ‘겸양’ 의미 让자문의 술어에도 동사가 많이 쓰이고 그 중에서도 동작과 관련된 동사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피동의미

피동의미의 让자문을 알아보기에 앞서 현대중국어에서 피동문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让자문이 피동표지 기능까지 갖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劉月華(1983)는 被자문이란 피동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被’ 혹은 ‘被’로 구성된 전치사구가 술어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가 되는 문장이라고 하였다. 문법적 특성으로는 被자문의 피행위자는 술어 동사의 피동자이며, 전치사 被의 목적어는 행위자라고 하고, 전치사 被 이외에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让, 叫, 给 등이 있다고 하였다.

『現代漢語八百詞』에서도 ‘被’가 주로 서면어나 공식적이고 엄숙한 장소에 많이 사용되는 반면, ‘叫’와 ‘让’은 구어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서술한다. 즉, 피동의미 被자문은 문어에서 보다 많이 쓰이고, 피동의미 让자문은 구어에서 자주 쓰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구어에서 쓰임이 많은 피동의미 让자문에 대한 고찰은 被자 피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는 실제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동의미 让자문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³⁷⁾ 따라서 본고는 드라마 극본인 《我愛我家》를 언어 자료로 삼아 피동의미 让자문을 연구하고자 한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사역의미 让자문과의

37) 이지현(2007:158) 희곡, 相聲 가운데 피동표지 ‘让’, ‘被’, ‘叫’의 출현비율 (吳門吉·周小兵(2004) 부분 인용)

		让	被	叫
희곡	『龍須溝』	1	0	0
	『茶館』	0	0	13
	『天下第一樓』	14	1	0
	『戀愛的犀牛』	3	13	0
	『車站』	0	1	2
相聲	『壽比南山』、『牛頭橋』、『找堂會』、 『反七口』、『六個月』等 12段	12	0	2
총계		30 (48.4%)	15 (24.2%)	17 (27.4%)

비교 분석을 통해 让자문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4.1 피동 의미 让자문의 의미적 특징

피동 의미 让자문의 의미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형을 이루는 주어, 목적어, 술어 등 개별 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 절에서는 《我愛我家》에서 추출한 피동 의미 让자문의 통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피동 의미 让자문 ‘X 让 Y+Z’ 형식에서 ‘X’에 해당하는 주어는 행위자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대상인 피행위자(受事)이다.

- (120) 日本人都让我给赶到东京去了嘛。
일본인들은 나에 의해 도쿄로 쫓겨났다.
- (121) 你别让我看见呀。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 (122) 那衣服让我给烧了。
그 옷은 나에 의해 태워졌다.
- (123) 你给我相片让我爱人看见了。
네가 내게 준 사진은 나의 애인에게 발각되었어.
- (124) 前几天, 让公安局给找去了……
며칠 전에, 공안국에 의해 잡혀 갔어……

(120-121)의 피행위자는 ‘日本人’과 ‘你’로 생명이 있는 유정물이다. 피행위자는 자신의 의지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인 ‘我’에 의해 ‘쫓겨나게’ 되거나 ‘눈에 띄게’ 된다.

반면 (122-124)의 피행위자는 ‘那衣服’와 ‘相片’으로 생명이 없는 무정물이다. 이들은 행위자인 ‘我’에 의해 ‘태워지게’ 되고, ‘발각’ 된다. (124)의 피행위자는 생략되어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생략

된 피행위자는 쉽게 찾을 수 있다.³⁸⁾ 이처럼 피동 의미让자문의 피행위자는 때에 따라서 생략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생략된 피행위자는 앞뒤 문맥에 의해 찾을 수 있다. 본고가 《我愛我家》에서 추출한 피동 의미让자문의 피행위자의 70%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혹은 대명사였다. 그리고 21%는 사물 혹은 추상명사였고, 7%의 피행위자는 생략되어 있었다.

이처럼 피동 의미让자문의 주어인 피행위자는 행위자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거나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대상이다. 즉, 피행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작을 당하게 되고, 어떠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유정물, 무정물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생략도 가능한 것이다.

이제 피동 의미让자문 'X 让 Y+Z' 형식에서 'Y'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보자. 피동 의미让자문의 목적어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인 행위자(施事)이다.

(125) 出来时候差点儿让我爸看见。

나올 때, 하마터면 우리 아빠에게 들킬 뻔 했다.

(126) 这屋子让李大妈给搬过……

이 방은李아주머니에 의해 옮겨졌다.

(127) 晚一步这虫子全让笨鸟给开了!

한발만 늦었어도 이 벌레들 죄다 새에게 먹혀버릴 뻔 했구나!

(128) 前几天, 让公安局给找去了……

며칠 전에, 공안국에 의해 잡혀 갔어……

(129) 就这么让空调给吹死……

그냥 이렇게 에어컨 바람에 의해 죽게 되어버리다니……

38) 예문 (124) 앞 문맥.

和平：哎哎，你别说唉，咱们团长，人家都是副局级了，见了人啦，先拍肩膀，特别平易近人，我们团多少小姑娘啊，个个跟他勾肩搭背的。

志国：啊啊

(125-127)의 행위자는 ‘我爸’, ‘李大妈’, ‘笨鸟’로 모두 생명이 있는 유정물이다. 피동 의미 让자문의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동작을 행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생명을 갖는 유정물이 많이 등장한다. 또한 피동 의미 让자문의 행위자는 유정물뿐만 아니라 장소나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무정물이 올 수도 있다. (128)의 행위자는 ‘公安局’로 장소이다. 그러나 이는 ‘公安局’로 대표되는, ‘公安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행위자이다. (129)의 행위자도 역시 ‘空调’로 무정물이다. 그러나 ‘空调’는 외형상의 행위 주체일 뿐 실제로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죽게 만드는’ 전체 사건의 원인이 되는 형식상의 주체이다. 피동 의미 让자문의 행위자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자.

(130) 他平常上银行存钱他都怕, 怕让人抢了……

그는 평소에 은행에 가서 돈을 저축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한다.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길까봐……

(131) 还没进门儿的就得让人给轰出去。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나야해.

(132) 你们家老傅啊, 在路口儿上, 让人家给撞了!

너희 집 傅할아버지 교차로에서 부딪히셨어.

(130-132)의 ‘人’과 ‘人家’는 특수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관없는 일반화된 사람을 가리킨다. 피동 의미 让자문에서 동작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주체를 알 수 없거나, 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人’ 혹은 ‘人家’라는 행위자를 사용하여 꼭 목적어 자리를 채워 넣는다는 점이다. 즉, (130-132)의 목적어 ‘人’과 ‘人家’는 행위자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생겨난 것이다.³⁹⁾ 본고가 《我愛我家》에서 추출한 피동 의미 让자문 행위자의 94%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혹은 대명사였다. 이 중 ‘人’과 ‘人家’로 대표되는 일반화된 사람은 21%를 차지했다. 5%

39) 朱德熙(1982)는 동작의 시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被’, ‘给’는 빈어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하며 ‘让’, ‘叫’는 자신의 빈어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도혜진(2009:20-21) 재인용.

는 장소 혹은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명사였다. 행위자가 생략된 문장은 한 문장도 없었다.

다음으로 피동 의미 让자문 ‘X 让 Y+Z’ 형식에서 ‘Z’에 해당하는 술어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피동 의미 让자문의 술어부는 피동 행위를 나타낸다.

(133) 那衣服让我给烧了。

그 옷은 나에 의해 태워졌다.

(134) 他平常上银行存钱他都怕, 怕让人抢了……

그는 평소에 은행에 가서 돈을 저축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한다.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길까봐……

(135) 千年古树刚要发芽就让你给折断了。

막 발아하려고 하는 천년된 고목이 너에 의해 부러져 버렸다.

(136) 嫩绿的小苗刚出土就让您给踩死了。

막 흙을 뚫고 나온 푸르스름한 작은 묘목이 당신에 의해 밟혀 죽었다.

(133)의 술어는 ‘烧’로, ‘我’에 의해 파괴당하는 부정적인 의미이다. (134)의 술어는 ‘抢’으로 ‘他’가 사람들에게 의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부정적인 내용이다. (135-136)의 술어도 ‘부러지고’, ‘밟혀 죽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술어 이외에도 본고가 《我愛我家》에서 추출한 피동 의미 让자문의 술어에는 抓住, 折腾, 毁, 轰, 拐跑, 骗走, 弄乱, 耻笑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137) 哎哟你可回来了, 哎哟还是让人给送回来的吧。

아이고, 네가 돌아왔구나, 아이고 끝내 사람들에게 의해 돌려보내진 것이구나.

(138) 这都是他要扔的, 全让我捡回来了……

이것은 모두 그가 버린 것인데, 모두 내가 주워왔어.

(139) 这屋子让李大妈给搬过……

이 방은 李아주머니에 의해 옮겨졌다.

(140) 生意让志新给做了。

사업은 志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137-140)의 술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我愛我家》에서 추출한 피동 의미 让자문의 술어 중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동사는 留下, 看, 干, 说, 出, 知道, 听, 钓走, 帮 등이 있었다.

이처럼 피동 의미 让자문 ‘X 让 Y+Z’ 구조에서, 술어에 해당하는 ‘Z’는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많았다. 그러나 피동 의미 让자문의 술어가 반드시 부정적인 색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피동 의미 让자문의 또 다른 특징은 ‘X 让 Y+给+Z’ 형식이 전체 피동 의미 让자문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즉, 피동 의미 让자문의 2/3 이상이 给와 함께 쓰이는 ‘X 让 Y+给+Z’ 문형이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피동 의미 让자문 ‘X 让 Y+Z’ 구조에서 ‘X’에 해당하는 피행위자는 유정물, 무정물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생략도 가능하다. ‘Y’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 가능하며, 행위자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다. ‘Z’에 해당하는 술어 부에는 부정적인 색채를 담은 동사가 많이 온다.

4.2 사역의미 让자문과의 비교

사역의미와 피동 의미 让자문의 통사적 구조 모두 ‘X 让 Y+Z’의 형식으로 구현된다. 이처럼 동일한 형식만 보고 사역과 피동 의미의 让자문을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 의미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3

장에서 분석한 사역의미 让자문의 특성과 앞 절의 피동의미 让자문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서 살펴본 다음 예문을 다시 한 번 보기로 한다.

(141) a. 我让他拿走了一本书。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가져가라고 했다.

=b. 我被他拿走了一本书。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뺏겼다.

(141d)에서 让을 被로 대체한 것처럼 피동표지 让자문은 被자문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141a)의 행위자인 ‘我’가 ‘他’에게 행위를 시키는 주체인 것에 반해, (142d)의 ‘我’는 수동자가 되어 피동의미를 나타내는 피동문이 된다. 즉 ‘수동자(受事) + 让 + 행위자(施事) + VP’의 구조로 피동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위의 (141a)의 문장이 ‘시키다’ 의미, ‘허락하다’ 의미, 피동의미 중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반드시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통사적 차이들이 让자문을 사역의미로, 혹은 피동의미로 만드는지 논의하기로 하자.

이제 사역의미 让자문의 사역자와 피동의미 让자문의 주어부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사역의미 让자문의 주어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역의미 让자문의 주어부는 모두 어떠한 사건을 발생시키는 행위자이다.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허락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역의미 让자문의 행위자는 그 의미에 따라 유정물 사역자와 무정물 사역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키다’ 의미와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에는 유정물 사역자가 쓰인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중 ‘겸양’ 의미는 사역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행위자에는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반면 피동의미 让자문의 주어부는 어떠한 일을 겪는 ‘수동자’이다. 즉,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행위자의 동작을 받는 피행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동의미 让자문의 피행위자는 유정물, 무정물 모두 나올 수 있다. 어떠한 일을 겪는 것은 생명이 있는 주체든, 없는 주체든 모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역의미와 피동의미 让자문의 목적어를 보자. 사역의미 让자문의 목적어는 피사역자이다. ‘시키다’ 의미와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일반적으로 유정물이 쓰인다. 다만 ‘허락하다’ 의미 중 ‘겸양’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我’나 ‘我们’만이 올 수 있다.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나 사물 명사, 추상명사, 대명사 등 다양한 체언구조가 나올 수 있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목적어는 행위자로 일반적으로 동작을 행하는 주체로 생명을 갖는 유정물이 많이 등장한다. 장소나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무정물 목적어가 올 수도 있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행위자는 동작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주체를 알 수 없거나, 없을 경우에도 ‘人’ 혹은 ‘人家’라는 목적어를 사용하여 꼭 행위자 자리를 채워 넣는다.

마지막으로 사역의미와 피동의미 让자문의 술어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초래하다’의미의 让자문의 술어부는 주로 결과의 발생이나 상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술어에는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심리동사가 자주 쓰이고 형용사 술어가 오기도 한다. ‘시키다’의미 让자문의 술어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지시 혹은 요구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성을 가진 동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의 술어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허락 혹은 불허한 동작을 나타낸다. 따라서 술어는 동작성을 띄는 동사가 많이 온다. ‘겸양’ 의미 让자문의 술어에도 동사가 많이 쓰이고 그 중에서도 동작과 관련된 동사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술어는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많이 온다. 이 때, 술어에는 원형 동사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술어에 부정적인 색채가 없다면 동사 뒤에 다른 성분 즉, 결과 보어나 정도 보어 등 다른 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동의미 让자문이 사역의미 让자문의 또 다른 특징은 ‘X 让 Y+给+Z’ 형식이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이는 사역의미 让자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4.3 소결

본 장에서는 피동의미 让자문의 통사적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 살펴본 사역의미 让자문과 피동의미 让자문의 통사적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그 구체적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사역의미 让자문과 피동의미 让자문의 통사 특징 비교

		사역자		피사역자		사역행위
		주동성	유·무정물	주동성	유·무정물	
사 역 의 미	‘시키다’ 의미: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시킴	+	유정물	-	유정물	동작성 동사
	‘허락하다’ 의미: 사역자가 피사역자의 행위를 허락 혹은 불허	+	유정물	-	유정물	동작성 동사
	‘초래하다’ 의미: 사역자가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냄	+	유·무정물	-	유·무정물	부정적 의미의 심리동사, 형용사
	피동의미: 피행위자가 행위자에 의해 어떠한 행위를 당하거나 결과를 얻게 됨	-	유·무정물	+	유·무정물	주로 부정적 의미동사

이를 종합해 보면 사역의미 让자문은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시키거나 허락하는 의미와 사역자가 원인이 되어 피사역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에 따라 통사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즉, ‘시키다’의 의미와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과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통사차이가 존재한다.

‘시키다’ 의미와 ‘허락하다’ 의미의 让자문은 유정물인 사역자가 무정물인 피사역자에게 동작을 시키거나 동작 여부를 허락해준다. 동작을 시키거나 동작 여부를 허락해 주기 때문에 술어는 주로 동작성 동사가 많이 나타났다.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은 유정물 혹은 무정물 사역자가 원인이 되어 유정물 혹은 무정물 피사역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때 술어는 부정적 의미의 심리동사나 형용사가 쓰인다.

피동의미 让자문은 피행위자가 행위자에게 어떤 행위를 당하거나 결과를 얻게 되는 의미를 가진다. 유정물 혹은 무정물인 피행위자가 유정물 혹은 무정물인 행위자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술어는 주로 부정적인 색채를 띠는 동사가 담당한다.

사역의미 让자문과 피동의미 让자문의 또 다른 차이는 피동의미 让자문이 ‘X 让 Y+给+Z’ 형식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역의미 让자문에서는 보이지 않고 피동의미 让자문에서만 볼 수 있는 형식이다.

5. 결론

본고는 현대중국어 让자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让의 기본의미와 확장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让자문을 사역의미와 피동의미로 나누어 그 통사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让자는 본래 ‘책망하다’는 의미로 쓰이다가, ‘양보하다’는 의미의 攘자의 가차자(假借字)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대중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让자의 기본의미인 ‘양보하다’의 의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국어 让은 ‘양보하다’라는 기본의미와 让의 확장 의미인 사역의미와 피동의미로 쓰인다. 让의 사역의미는 다시 ‘시키다’ 의미, ‘초래하다’ 의미, ‘허락하다’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허락하다’ 의미는 또 다시 ‘허락하다’ 의미와 ‘겸양’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겸양’ 의미는 ‘我’나 ‘我們’으로 나타나는 피사역자가 사역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는 문장이다. 다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허락의 주도권을 주는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른 사역 표지 문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让의 고유한 용법이다.

사역의미 让자문의 의미별 사역자, 피사역자, 사역 행위의 통사 특징에 대해서는 사역자의 유·무정성과 통제도 측면에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시키다’ 의미와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에는 유정물 사역자가 쓰인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중 ‘겸양’ 의미는 사역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에는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 쓰일 수 있다. 사역자의 통제도는 ‘초래하다’ 의미 > ‘시키다’ 의미 > ‘허락하다’ 의미 순으로 나타난다. 즉,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자가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높고, ‘허락하다’ 의미의 사역자가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낮다.

사역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유·무정성 측면에서 사역자의 분석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다만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중 ‘겸양’ 의미 让자문

의 피사역자에는 ‘我’나 ‘我们’만이 올 수 있다. 또한 ‘겸양’ 의미 让자문은 목적어 ‘我’나 ‘我们’의 바람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사역의미 让자문의 피사역자는 사건의 통제도 면에서 사역자와 차이점을 보인다. ‘허락하다’ 의미 > ‘시키다’ 의미 > ‘초래하다’ 의미 순으로 ‘허락하다’ 의미의 피사역자가 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역의미 让자문의 사역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를 분석해보면, ‘시키다’ 의미 让자문의 술어와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의 술어는 동작성을 지닌다. ‘허락하다’ 의미 让자문 중 ‘겸양’ 의미 让자문의 사역 행위도 동작성을 가진다. 다만 ‘초래하다’ 의미 让자문의 사역 행위는 결과의 발생이나 상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술어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심리 동사가 자주 쓰이고 형용사 술어가 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피동의미 让자문의 통사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동의미 让자문과 사역의미 让자문과의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먼저 피동의미 让자문의 주어는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 피행위자(受事)로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생략도 가능하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목적어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인 행위자(施事)로 유정물이 주로 오지만, 유정물뿐만 아니라 장소나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무정물이 출현할 수도 있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행위자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그 동작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주체를 알 수 없거나, 없을 경우에도 ‘人’ 혹은 ‘人家’라는 목적어를 사용하여 꼭 행위자 자리를 채워 넣는다는 점이었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피동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동작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 피동의미 让자문의 또 다른 특징은 ‘X 让 Y+给+Z’ 형식이 많이 쓰인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본고는 让자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让자문은 동사에서 사역의미로, 또 다시 피동의미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역의미 让자문에는 ‘겸양’ 의미를 가진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중국어 让자문은 구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문형이다. 따라서 시대

에 따라 그 쓰임이 빠르게 변화한다. 앞으로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계속 변화하는 한자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원전류

『兒女英雄傳』, 文康(1983), 三民書局.

2. 단행본

김기혁, 손금추(2011), 『어순 유형론과 개사 이론』, 보고서.

송창선(2010), 『국어 통사론』, 한국문화사.

오주영(1998), 『화용론과 의미해석』, 경성대학교 출판부.

이기동(2000),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이상억(1999), 『국어의 사동·피동 구문 연구』, 집문당.

이성범 外(2002), 『화용론 연구』, 태학사.

이영주(2000),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익섭, 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學研社.

이준희(2000), 『간접화행』, 亦樂.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탐출판사.

정태구(2001), 『논항 구조와 영어 통사론』, 한국문화사.

허성도(2007), 『현대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 책.

馮春田(2000), 『近代漢語語法研究』, 山東教育出版社.

胡裕树, 范晓 主编(1985), 『動詞研究綜述』, 山西高校聯合出版社[김현철

등 역(2004), 『현대중국어 동사연구』, 학고방].

劉月華 等(1983), 『實用現代漢語語法』,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劉月華 外(2007), 『實用現代漢語語法』(7刷), 商務印書館.

陸儉明(1993), 『八十年代中國語法研究』, 商務印書館[이홍진 역(1994),

『80년대 중국 어법 연구』, 중문출판사].

石毓智·李訥(2001), 『漢語語法化的歷程』, 北京大學出版社.

王 力(1943), 『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_____(1958), 『漢語史稿』語法篇, 中華書局.

朱德熙(1982),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Bernard Comrie(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orge Yule(2003), 『Pragmatics』, Oxford [서재석 外 역(2001), 『화용론』, 박이정].
- Jan Renkema.(1993), 『Discourse studies: an introductory textbook』, J. Benjamins [이원표 역(1999),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 Joan Bybee,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박선자 外(2010), 『문법의 진화』, 소통].
- Schlieben-Lange, Brigitte(1975), 『Linguistische Pragmatik, Kaln』, Urban [소만섭 역(2001), 『언어화용론』 한국문화사].
- Ungerer, Schmid(1996), (An)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gman [임지룡, 김동환 역(1998, [2010]), 『인지언어학 개론』, 태학사].

3. 논문류

- 김미형(2000),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제7호, 한말연구학회.
- 김민영(2009), “현대중국어 완곡표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숙자(2005), “일본어의 겸양표현 「V-saseteitadaku」의 의미용법”, 『人文科學研究』 16권,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영실(1996), “언어적 공손 현상의 화용론적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 논문.
- 김윤경(1997), “現代漢語使動句研究”, 『중국어언어연구』 5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 김윤정(2008) “현대중국어 사역구문 비교분석 연구”, 『중어중문학』 제42집, 한국중어중문학회.
- 김종영(2004), “‘Force Dynamics’를 활용한 어휘와 표현의 의미 지도 방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11), “현대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역의미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철(2003), “몇 가지 중국 어법용어의 정의문제에 대하여”, 『중국어문학논집』 제24호, 중국어문학연구회.
- 김홍석(2008), “국어 어휘 범주의 완곡어(婉曲語)고찰”, 『한어문교육』 제19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도혜진(2009), “현대중국어被, 讓, 叫, 给 피동문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관수(2004), “비교문화 관점에서 본 한미의 언어문화와 공손표현에 대한 탐색”, 『비평문학』 제18호, 한국비평문학회.
- 박미정(2001), “현대중국어의 사역표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수, 양명숙(1995), “정중성(Politeness)에 관한 고찰: 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6권, 부산외대 문화연구소.
- 박송희(2014), “한·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석(2010), “漢韓分析型致使結構比較研究”,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 _____(2011), “중한 실의사동동사문 연구”, 『중국문화연구학회』 제18집, 중국문화연구학회.
- 서미영(2009), “중국어 상용 겸양어와 경어 小考” 『중국어문학논집』 제59호, 중국어문학연구회.
- 서정아(2008), “겸양표현 「～(さ)せていただく」의 발화 의도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진주(2011), “한국어 교육용 완곡 표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중동(2005),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영어공손표현”, 『영어영문학 연구』 제47권 제1호,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 이사묘(2013), “한·중 요청발화의 공손표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주(1959), “완곡어법 소고”, 『한국어교육학회지』 2권, 한국어교육학회.
- 이운재(2014), “시공간 개념에 근거한 현대중국어 어순 연구”, 서울대학

- 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현(2007) “현대중국어 피동표지 ‘讓’의 문법화 과정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44호, 중국어문학연구회.
- 왕소단(2011),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홍석(2004), “現代中國語動詞重疊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기정(2005), “현대중국어 ‘讓’, ‘叫’의 피동 용법” 『중국어문학논집』 제34호, 중국어문학연구회.
- 전혜영(2004), “한국어 공손표현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제15호, 한국어의미학회.
- 정동보(1995), “清代俠義小說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준학(1986), “공손의 조건”, 『영어영문학회』 32권 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 조혜선(1999), “완곡어법의 화용론적 설명”, 『한국커뮤니케이션학』 7권,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최현미(2014), “让구문의 한국어 번역문을 통한 한국학생들의 让구문 화용적 의미 인식 조사 연구”, 『韓國中國言語學會』, 2014년 춘계 학술 대회.
- 홍기선(2003), “영어 사동구문의 의미적 연속성”, 『영어영문학』 제49권 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 曹冬雪(2009), “讓字句的語義特征”, 『昭通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第4期.
- _____(2010), ““讓”字句的偏誤分析”, 『文教資料』第12期, 南京師範學院.
- 陳昌來(2001), “論現代漢語的致使結構”, 『井岡山師範學院學報』第3期.
- 陳力(2002), ““被”和“讓”表被動的句法語義對立及其功能解釋”, 南開大學 석사학위논문.
- 陳長虹(2011), “現代漢語“使”、“令”、“讓”字句比較研究”, 蘇州大學 석사학위논문.
- 鄧守信(1991) “漢語使成式的語義”, 『國外語言學』 第3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 范曉(2000), “論‘致使’結構”, 『語法研究與探索 (十)』, 商務印書館.
- 郭玲(2009), “使動結構“X+讓+Y+VP”的句法特点和語義類型研究”, 上海

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李永泉(2011), “《儿女英雄傳》考論”, 哈爾濱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李允玉(1997), “表示被動的介詞‘被’, ‘叫’, ‘讓’, ‘給’ 比較研究”, 北京大學 석사학위논문.

劉云(2006), “北京話使役兼表被動現象研究-以“讓”和“給”爲个案“, 北京, 語言大學 석사학위논문.

師爲公(2001), “釋‘讓’”, 『蘇州鐵道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石毓智(2005), “被動式標記語法化的認知基礎”, 『民族語文』 第3期, 中國社會科學院.

王功領(2013), “現代漢語致使義“讓”子句研究“, 安徽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王振來(2006), “現代漢語‘被動標述’研究綜述”, 『錦州醫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章家誼(2005), “‘讓’語法化過程的个案分析”, 『海外華文教育』 第4期, 廈門大學海外教育學院.

_____(2006), “‘讓’的性質与功用及相關句式”, 上海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周紅(2006), “漢語致使范疇建构研究”, 『渤海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4. 공구서 및 인터넷 자료

『표준국어대사전』, 국립 국어원(<http://www.korean.go.kr/>)

『辭海』, 辭海編輯委員會編(1999), 上海辭書出版社.

『動詞用法詞典』, 孟琮 外(1987), 上海辭書出版社.

『我愛我家』 <http://s.dianping.com>⁴⁰⁾

『現代漢語八百詞』(5版), 呂淑湘(1999), 商務印書館.

『漢語大詞典』(5刷), 羅竹風(1995), 漢語大詞典出版社.

Evans(2007), A Glossary of Cognitive Linguistics, The Edinburgh University Press [임지룡, 김동환 역(2010), 『인지언어학 용어사전』, 한국문화사].

40) 『我愛我家』의 극본을 위 사이트를 토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中文摘要】

现代汉语“让”字句语义功能研究

金正珠

本文对现代汉语中可表示多种含义的“让”字句进行了较为全面的研究。“让”本来表达“相责”义，“让步”义最初始于攘的假借字，同时，“让步”义也逐渐固化为现代汉语中“让”的基本义。

本文所使用的语料主要来自电视剧《我爱我家》的剧本中的“让”字句。通过考察，现代汉语中“让”的语义可分为两种。第一，“让”表达“让步”的基本义，第二，由基本义派生出的“使役”义和“被动”义。表“使役”义的“让”又可以分为“命令”义、“致使”义和“容许”义。但其中表“容许”义的“让”的受事“我”或者“我们”不受施事影响，即无论施事容许或不容许，受事都将按照自己的意志实现某种行为，这只是采用“询问对方是否允许”的方式表达对对方的尊重的一种语用方式。这种特殊用法是其他表“使役”义的句子所没有的。

另外，本文根据“使役”义的各种下位语义分析了“让”字句的施事、受事，表使役行为的动词的句法特征以及施事和受事的〔有生性〕和“控制度”。结果如下：

1. 表“命令”义和“容许”义的“让”的施事带有〔+有生性〕的语义特征；表“谦虚”义的“让”不带施事；表“致使”义的“让”的施事带有〔±有生性〕的语义特征。表“致使”义的施事的控制度最高，表“容许”义的施事的控制性最低。

2. 表“命令”义和“容许”义的“让”的施事与受事都带有〔±有生性〕的语义特征，但表“谦虚”义的“让”的受事只能是“我”或者“我们”，受事的控制度与施事不同。表“容许”义的受事的控制度最高；“致使”义受事的控制度最低。

3. 表“命令”义和“容许”义的“让”字句中的谓语具有〔+动作性〕的特征；“谦虚”义的谓语也具有〔+动作性〕的特征，但表“致使”义的“让”字句中的谓语主要表示“产生结果”和“状态变化”。

4. “被动”义的“让”字句的主语是受事，宾语是施事；表“被动”义的“让”字

句的主语和谓语都带有〔±有生性〕的语义特征；表“被动”义的“让”字句的宾语不能省略。

5. 表“被动”义的“让”字句的谓语主要由贬义的行为充当。表“被动”义的“让”字句常使用“X 让 Y + Z”这一句式。

综上，“让”字句从动词发展出“使役”义，又发展出了“被动”义。表“使役”义的“让”字句还包含“谦虚”义。

关键词：让字句、使役义、谦虚义、控制度、被动义

学号：2011-23077